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제1056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3분기 5% 깜짝성장… 다우 1만8000 돌파

중국산 철강재 반덤핑 관세 물린다

"H형강 가격 28% 낮춰 유통 국내 철강산업 생존권 위협" 산업부 '덤핑' 첫 예비판정 관세율 18~33% 잠정 결정

정부가 중국 철강업체에 'H형강' 덤핑 판매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는 수입 철강재에 대해 정부가 내린 첫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중국산 H형강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철강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관세율을 18~33%로 잠정 판정했다.

통상 국제무역에서의 반덤핑 관세율이 10~20%대 것을 고려할 때 정부는 중국산 H형강이 국내에 미치는 산업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본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최종 판정한다.

이번 산업부의 예비판정은 국내 철강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들 업체는 지난 5월 30일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에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 H형강은 주로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로 쓰이는 철강재로, 지난 3년간 중국산 제품은 최대 28%가량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돼 왔다.

철강업계는 이번 정부의 판정에 반색하고 있다. 홍종의 한국철강협회 조사통상실 팀장은 "H형강의 중국산 수입 비율은 30~40%인데 이마저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산의 수입 비율이 올라갈수록 국내 업체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판정 역시 예비판정과 마찬가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철강업계 일부에서는 아직 가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FTA에서 어떤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할지 협상 중이다. 현재 한국산 철강재가 중국에 수출될 때 최대 10% 관세를 물지만 중국산 철강재 대부분은 국내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재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과 국내의 철강산업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업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소비심리' 15개월만에 최저…해외여행 지출은 사상 최대



경기 불황에도 해외로 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1335만1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증가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국민 1인당 해외여행 지출액은 1235달러(약 138만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Money 수요섹션 17~21면

커버스토리
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모바일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美경제 '산타'가 오셨네

소비지출 기업투자 늘어 분기 성장률 11년만에 최고

미국 경제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시장의 회복과 저유가에 힘입어 지난 3분기 성장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5.0%를 기록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관련기사 11면

이는 전월의 수정치 3.9%는 물론 월가 전망치 4.3%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3분기 성장률은 지난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분기 4.6% 성장한 이후 3분기에도 고속 성장을 이어가면서 지난 2개 분기 성장률은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지출과 기업투자가 예상보다 늘어난 것이 성장률 호조의 배경이다. 지난 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은 수정치의 2.2%에서 3.2%로 상향됐다. 내수 증가율은 4.1%로 수정치에서 0.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0년 2분기 이후 최고치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유가 약세를 고려하면, 미국의 소비지출은 내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유가 하락이 감세 효과로 이어지면서 지출 역시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업의 고정투자는 7.1%에서 8.9%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날 개인지출과 소비자신뢰지수 등 주요 지표의 전반적 호전에 힘입어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36%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1만8000선을 돌파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KB금융, 끝내 LIG손보 품는다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KB금융이 우여곡절 끝에 LIG손해보험의 새 주인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KB금융과 LIG손보 간의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된 지 6개월 만에 금융당국의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취임 후 첫 시험대를 통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미뤄 애를 태웠던 탓에 손익계산을 다시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승인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KB금융 사외이사 전원 사퇴와 함께 사외이사 권한 축소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위가 그동안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승인 조건으로 조직 쇄신안을 강조해 온 만큼 이날 정례회의에서 무난하게 인수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철우 기자 acw@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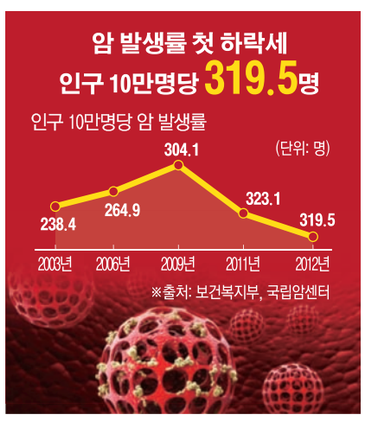
서울 혼인건수 1990년 이래 최저

작년 서울의 혼인건수는 1990년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시민 가족생활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6만9000건으로 20년 전인 1993년(10만4000건)보다 33.5% 감소했으며, 1990년(10만3843건) 이후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서울의 출생아 수는 8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20만3000명) 이래 최소치로 집계됐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한국인 암 발생률 12년만에 줄었다

2000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인의 암 발생률이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암등록본부와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한 결과 2012년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은 319.5명으로 전년보다 3.6명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 12년 만에 암 발생률이 줄어든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1년 10만명당 347명에서 337.2명으로 9.8명 줄어든 반면 여성은 320.1명에서 321.3명으로 1.2명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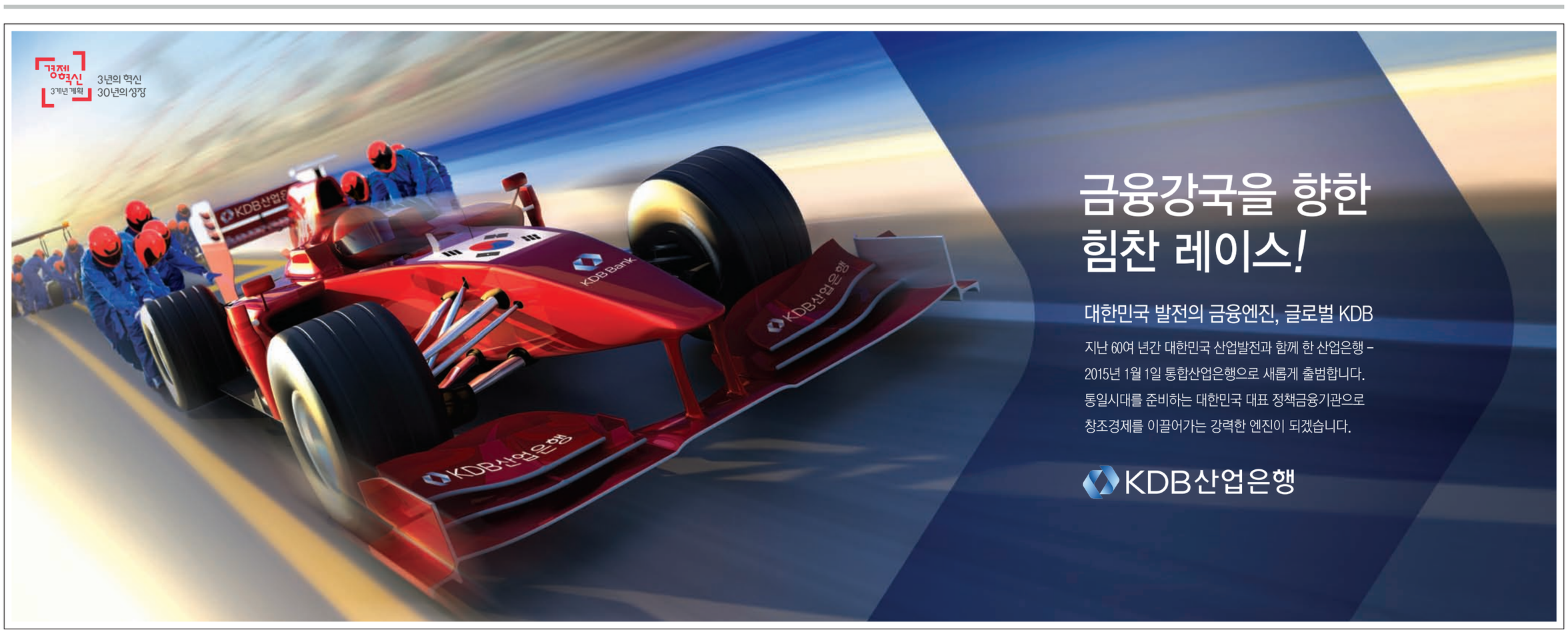
김부미 기자 boomi@

알립니다

이투데이 온라인·모바일 뉴스 집중 26일 지면신문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투데이는 오는 12월 26일(금) 휴간합니다. 성탄절 휴일 등을 고려하면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4일간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투데이는 이 기간 온라인과 모바일 뉴스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투데이는 최근 뉴미디어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새해에는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경제신문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신문 휴간 기간 중에도 온라인과 모바일 독자를 위한 깊이 있고 다양한 기사를 24시간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오프라인 신문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믿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웃은 박삼구 '이제 실탄 확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산업 이어 '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주력회사 경영정상화 '제2 창업' 선언
채권단 지분 인수금 마련 수면 위로
타이어 파업… 노사협상 해결도 과제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에 모처럼 웃음을 지었다. 박 회장은 그룹 주력 회사의 잇따른 정상화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3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의 동의서를 받은 결과 가결 요건을 갖춰 5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정상화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금호산업이 채권단 출자전환 주식 매각과 동시에 워크아웃을 종료하는 조건부 졸업을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초 자율협약에서 벗어났다.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을 예견한 듯 박 회장은 하루 앞선 22일 내년 경영방침을 '자강불식(自强不息)'으로 정하고, 쉼 없는 노력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자신한 제2의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터미널, 금호리조트 지분을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인수 건을 들 수 있다. 박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채권단 지분 57.5% 중 40% 이상을 사들여야 한다. 업계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2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봤으나, 최근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지분을 늘리는 통에 금호산업 주가가 오르면서 박 회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매입 예상 대금은 3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또 그룹의 근간인 금호고속 인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회장은 금호고속 지분 100%를 가진 IBK케이스톤 사모펀드와 매각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대립 양상을 빚고 있다. 금호 측은 애초 매각 가격인 3300억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견해이지만, 사모펀드 측은 5000억~6000억원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손실 및 대외 이미지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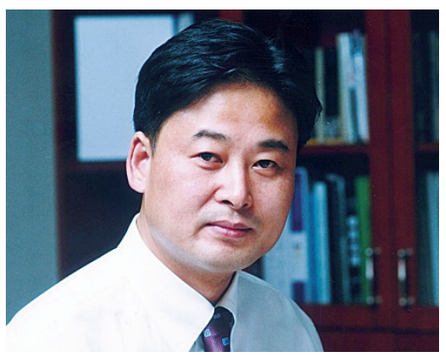
게다가 이번에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는 노조 파업이란 걸림돌과 마주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3일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2.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아이마켓 띄우기' 발벗고 나선 이기형 회장

〈인터파크〉

인수때 사모펀드와 '수익보장 옵션'
주가 3만2800원 지켜야 부담 최소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경영 전면에
자사주 취득·배당 '주가 관리' 나서



이기형〈사진〉 인터파크 회장이 자회사 아이마켓코리아의 경영에 직접 나선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이마켓코리아는 이기형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박병주·이상규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 회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직접 경영 현안을 챙기는 회사는 인터파크, 인터파크INT, 아이마켓코리아 총 3개가 됐다.

아이마켓코리아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자재 전자상거래 유통을 선도하는 산업재 기업간거래(B2B) 전자상거래업체다. 주요 고객은 삼성그룹 계열사이며 전체 매출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 회장이 아이마켓코리아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다 경영 전면에 나선 것은 회사의 성장을 직접 이끌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모회사인 인터파크가 아이마켓코리아의 재무적투자자(FI)에게 보장해야 하는 수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도 풀이된다.

인터파크는 아이마켓코리아를 인수할 당시 우리블랙스톤사모펀드(PEF)와 수익보장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우리블랙스톤PEF는 아이마켓코리아가 이 회사의 주식 415만주(지분율 11.55%)를 매입하기 위해 총 1000억1500만원에 사들였다. 조건은 인터파크가 최초 취득가액에 보장수익률(7% 혹은 8%)만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처분 가격의 차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지난 2011년 12월 23일부터 4년간 효력이 있다.

결국 보장수익률을 8%로 가정했을 시 내년 12월 23일에는 아이마켓코리아의 주가가 최소 3만2800원이 돼야 인터파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마켓코리아의 주가는 지난 6월 24일 4만45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향해 23일 종가 기준 2만87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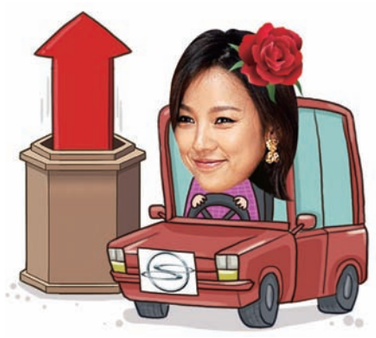
결국 이 회장은 직접 아이마켓코리아를 챙기며 주가 부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마켓코리아 역시 지난달 21일부터 1년간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23일에는 보통주 1주당 500원을 배당하는 총 179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며 주가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아이마켓코리아의 주가 추이는 긍정적일 전망이다. 양지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로 인해 3분기 양호한 실적 달성에도 주가는 부진한 양상을 이어왔다"며 "현 주가는 역사적 최하단이며 과거 삼성그룹이 아이마켓코리아 매각을 결정한 이후 폭락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쌍용자동차의 '흑장미' 이효리

"비키니 입고 춤" 신차 티볼리 공약
부진하던 주가 3일간 16.11% 급등



'완판녀' 이효리의 광고 효과는 역시 대단했다. 가수 이효리가 쌍용자동차가 내년 선보이는 신차 '티볼리'를 언급하자 티볼리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연일 오르며 떨어지던 쌍용차의 주가도 끌어올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차의 주가는 지난 3거래일 동안 16.11%나 올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업이익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주가는 연일 상승세다.

신차 '티볼리'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던 쌍용차 주가는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8% 넘게 하락하며 하향세였다.

하지만 이효리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쌍용자동차에서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서 함께 일하던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가 안정되고, 해고됐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는 글을 게재하자 쌍용차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효리의 발언은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갔고 곧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되면서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이다.

여기에 22일 쌍용차가 티볼리의 실제 이미지 공개와 함께 전국 270여개 전시장에서 티볼리의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폭은 더욱더 확대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효리씨의 '티볼리'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쌍용차의 신차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키이스트의 '소년가장' 김수현

'별그대' 인기 올 광고수익 1000억
소속사 3분기 흑자전환 '일등공신'



김수현이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의 별로 부상하며 키이스트 매출도 껑충 뛰어올랐다. 김수현을 등에 업은 배용준이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역직구 사업에 뛰어들며 키이스트의 외형은 물론 수익성도 괄목할 수준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키이스트 소속 배우 김수현이 한국과 중국에서 벌어들인 CF 수익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스타로 급부상한 김수현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 685억원에 불과했던 키이스트의 실적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키이스트는 올 3분기 55억원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정확한 수익 기여도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김수현 효과가 키이스트의 실적 개선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CF뿐 아니라 김수현은 드라마 '별그대' 인기 속에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 7개국 총 9개 도시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티켓 가격을 평균 13만원으로 환산하면 총 수익 65억원을 거둬들였다. 또 강소위성TV '최강대뇌'에 출연해 우리나라 돈으로 5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중국에서 촬영한 광고만 30편 이상으로 909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별그대 이전에 6억 원 수준의 모델료를 받았던 김수현은 현재 8억~10억원에 가까운 모델료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찍은 CF만 15편 이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덕분에 키이스트 주주까지 덩달아 혜택을 보며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수현이 키이스트를 먹여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부동산 불씨 살릴 '마지막 카드'…"시장효과는 제한적"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운영위 소집, 부동산 3법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주례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토위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토위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정성호 간사. 뉴시스

부동산 3법 내용

제도	변경안 내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17년까지 3년간 유예 이후 폐지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는 적용 민간택지는 탄력적용
재건축조합원 주택소유수 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시 조합원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고 3채까지 분양 가능

2014년 부동산 관련 정책 주요 내용

2월 26일(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전환, 고액 전세거주자 정부지원 제한, 월세 공세방식 소득공제 → 세액공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7월24일(하반기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대출규제(LTV · DTI) 완화, 디딤돌대출 대상 1주택자로 확대, 청약가점제 다주택차별 폐지추진 재건축 규모제한 · 안전진단기준 완화

9월 1일(9 · 1대책)

재건축 연한 최장 40년 → 30년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수도권 청약 1~2순위 통합,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축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10월 30일(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 연소득 2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우대,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부동산 3법' 합의…전문가 진단

민간 분양가 상한제 7년만에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 3채까지 허용

거래활성화 긍정적 영향 기대 불구
강남권에 집중·집값 상승 우려도



장 재건축 · 재개발 출구전략 생김
장 건설사 미래 불확실성 제거
장 조합원 소유 가구수 증가
단 서울 강남위주 정책
단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 주택구매 난항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



장 시장 불확실성 해소
장 건축단지 거래 활성화에 영향
단 강남에 집중 우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장 시장 점진적 변화 예상
장 수요자 움직임 활발 전망
단 실질적 큰 변화 없을 것
단 호가 올라 매매시장 재침체 가능성
장 장점
단 단점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여야가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거래가 크게 늘거나 하는 등의 시장 효과가 적을 것이며 일부지역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업체나 조합원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관련 3법의 핵심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과도한 재산권 규제였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을 1채에서 3채로 늘린 것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7년 만에 폐지… 거래활성화 긍정적 =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 이후 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규제가 풀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합의 내용 중 이미 반영된 사안도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큰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투자 목적의 움직임보다 실수요 위주의 움직임이 많아서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생길 것으로 양 실장은 예상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도 "관망 중인 교체수요와 투자수요의 심리가 일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정비사업시장 탄력 = 이번 합의 중 중요한 하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3년 유예 결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우선 재건축·재개발 출구전략이 생겼다. 이는 건설업체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수 있는 혜택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건설사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함 센터장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3년이 유예돼 강남 재건축 단지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진성 애널리스트도 이번 합의가 건설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가 급락에 따른 건설주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개선돼 주택업체 수혜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주택 조합원당 3채 허용… 강남한정·가격 상승 우려 = 부동산 3법 중 마지막 하나는 재건축 주택공급에서 조합원이 기존 1채에서 3채까지 확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이번 합의로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조합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다만 강남쪽 위주의 정책이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부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 결국 서민들이 집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함 센터장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효과의 경우 강남권에 집중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양 실장도 이번 합의로 시장에서 매도세 위주로 호가가 오르겠지만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느껴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실효성 및 한계점 지적 = 이번 합의에 대해 거래활성화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장에 큰 변화는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 실장은 "이미 각종 규제들이 완화될 것들도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 규제상 완화된 내용이 반영되겠지만 단기간 내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라 애널리스트는 "(이번 합의가) 내년 신규분양 호조세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국회 장기 계류로 법안이 통과돼도 정책 실효성이 떨어져 기대보다 약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위 설치는 세입자 보호 및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월세 대신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강제성이 짙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태진 기자 tjpippo@

2·26…7·24…9·1…10·30 '쏟아진 대책'

풀건 다 풀었지만 정책 효과는 '별로'

'온기가 확산하려면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몇 차례의 굵직한 대책에 출렁거렸다가도 이내 효과가 잦아들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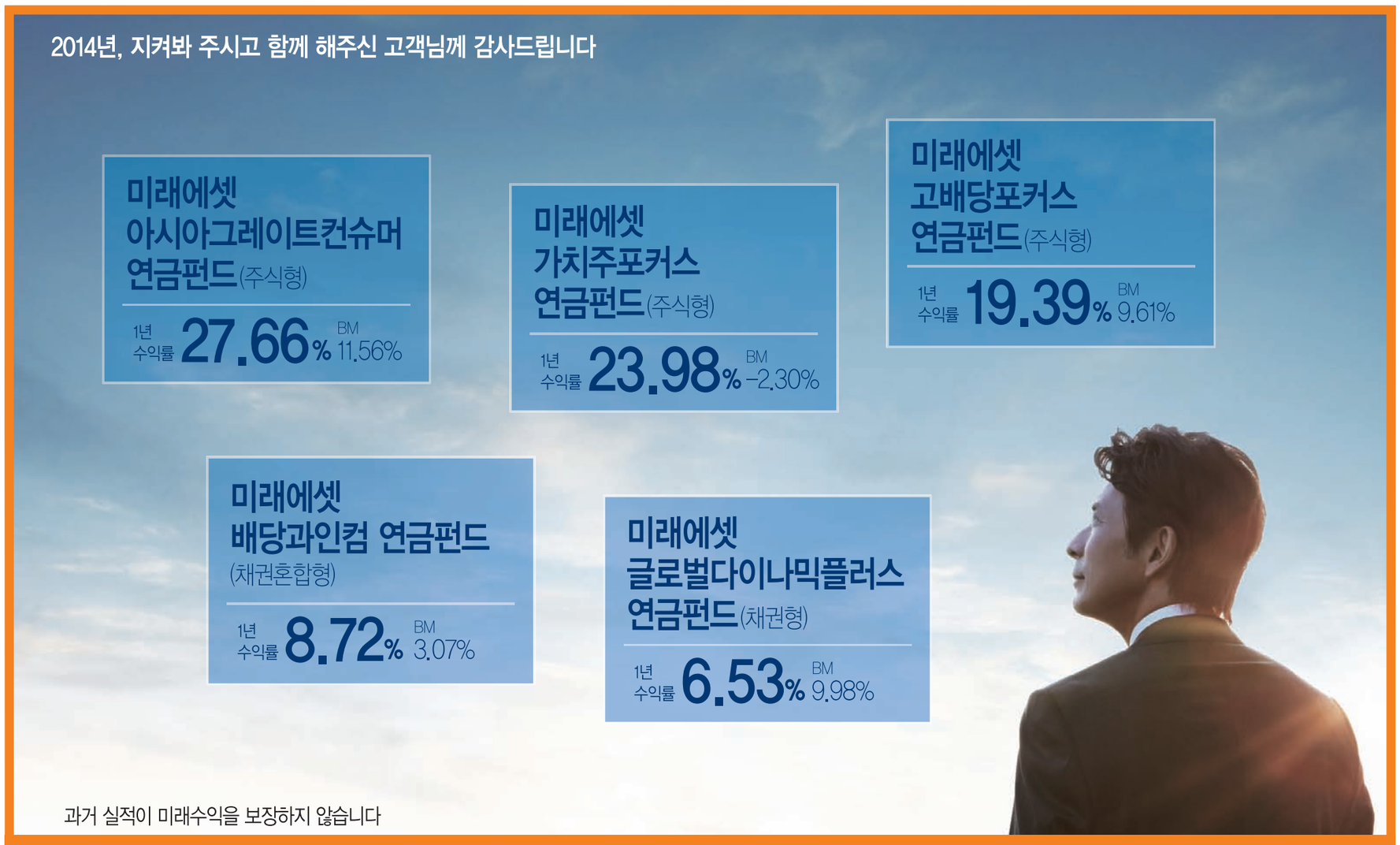
올해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대책은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 7·24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9·1 대책, 10·30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 총 4가지다.

시장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8월 0.36%, 9월 0.37%, 10월 0.4% 등으로 반응했다. 거래량 역시 10월 10만90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책의 약발은 금방 꺾였다. 11월 들어서 매매가격 상승폭은 0.12%로 작아졌고, 이달에 들어서는 0.05%에 그쳤다. 거래량도 11월에 접어들면서 9만1000건으로 10월에 비해 2만건 가량 줄었다.

이 때문에 연내 입법이 가시화된 부동산 3법으로 추가적인 정책적 효과가 발생할지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3법이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등 과거 투기 과열기에 도입된 3가지 규제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핵심 내용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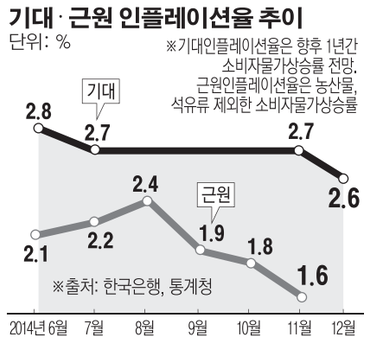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얻는 이익을 최고 50% 환수하는 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데다, 그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는 이 제도를 2017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발의된 지 2년3개월 만에 매듭이 지어진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바뀐다. 정부는 이 조치의 시행이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원 주택수 제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한 규제다.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분양 가능한 주택을 최대 3채까지로 늘렸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기대인플레율 '뚝뚝'… 디플레 공포 '쑥쑥'

두달만에 0.1%P↓… 2.6%
2002년 이후 최저치 기록
근원인플레 증가도 가장 낮아



소비자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장기간 1%대에 머무는 것은 물론 통상 잘 움직이지 않는 기대인플레이션율까지도 빠르게 하락하자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장기간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는 등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2.6%로 집계, 2002년 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5월 2.9%에서 2.8%로 떨어진 후 줄곧 2.8%를 유지하다가 10월 2.7%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어 두 달 만인 12월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특성을 띠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내림세는 더 뚜렷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 평균 추이를 보면 2011년 4.0%, 2012년 3.7%, 2013년 3.0%로 꾸준히 저점을 낮췄고, 올해도 2.75%로 내려갔다.

이러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은 실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해 중장기적 물가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지난 11월 전년 동월 대비 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1.5%) 이후 1년 3개월 사이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농산물 가격과 유가 안정 등 공급측 원인뿐 아니라 전반적 수요 부진이 저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소비자물가를 보면 11월까지 25개월째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 범위(2.5~3.5%)를 오랜 기간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1.0%를 기록해 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세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0%대에 머물 전망"이라며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 8~9월 107로 올라섰다가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87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문에 서명한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왼쪽부터).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내년 3월까지 비정규직 문제 결론

노사정 '원칙·방향' 일단 합의
3가지 과제 우선 논의키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내년 3월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결론 짓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정부·공익위원 등 10명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최고 심의·의결 회의체다.

특히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최근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 3가지 의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구조개편 결론 시점을 3월로 못 박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노사정 기본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불참한 민주노총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합의 발표 직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합의는 현재의 위기극복은 물론 미래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에 노사정이 깊이 공감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과거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에게 희생과 책임을 전가하던 고통분담론의 2014년 버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제약산업 육성펀드 2350억원으로 증가
1350억 규모 추가 조성

정부가 제약사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13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펀드 규모는 총 235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200억원과 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등 민간 1150억원 출자를 결정해 총 1350억원 규모의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가 조성됐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하고자 조성되는 제약사 특화 펀드다.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이번에 두 번째로 출자가 결정됐다.

2호 제약펀드는 지난달 위탁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선정한 이후 출자자를 모집한 지 1개월 만에 1350억원 조성에 성공했다.

2호 제약펀드는 제약사의 기술제휴와 글로벌 임상 등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진 생산시스템 구축 등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약산업의 장기 투자 특성을 반영해 투자비 회수기간을 8년(2년 연장 가능)으로 결정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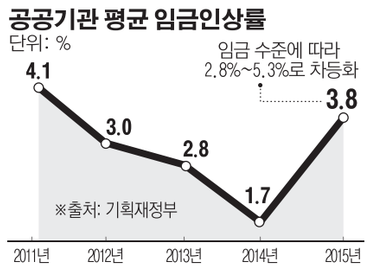
1400원대 주유소 등장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에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대인 주유소가 등장했다. 23일 서울 개화동 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표 시판이 리터(L)당 1497원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에 휘발유 리터당 1599원으로 '1500원대 주유소'가 등장한지 3주 만에 1400원대 주유소가 나온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기업 임금 올리면 민간기업도 올린다?

내수 진작 위해 인상 유도 전략
내년 3.8% … 3년 만에 최고치
사내 근로복지금 한도도 높여
"방만경영 여전한데" 비판 높아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로 정했다.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내수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경기부진에 임금을 올려 줄 형편이 안 되는 기업이 늘고 있어 민간에까지 그 효과가 미칠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내년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고려해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한도도 높인다. 이 또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공기업 개혁 의지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설정했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4.1%로 올랐다가 2012년 3.0%, 2013년 2.8%, 2014년 1.7%로 계속 낮아졌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임금을 내년에 전격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으로 민간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조성,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띄우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하지만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기엔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의지와 달리 아직 민간기업들이 임금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산업별 특성과 임금수준을 고려해 2.8~5.3%로 인상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산업별 평균의 110% 이상, 공공기관 평균의 12%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평균보다 1.0%포인트 낮춘 2.8%의 임금인상률이 적용된다.

전민정 기자 puri21@

"정부 과도한 정책사업이 공공기관 부채 증가 요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지난해 말 이미 5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 요인이 과도한 정부 정책사업과 공공요금 규제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발생한 부채와 정부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가려 관리하고, 공공요금 체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먼저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 30개의 부처가 전체 공공기관(303개) 부채의 약 71%를 차지하고,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약 95%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7개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다.

김미영 기자 bomnal@

여야, 자원외교 국조·공무원연금 '빅딜'

여야가 23일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빅딜에 최종 합의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사건의 논의를 위해 야당이 주장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는 내년 1월 9일로 결정됐다. 또 야당의 요구사항인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3+3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우선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개최키로 했다. 야당에 따르면 양당은 운영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행서관 등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김영한 민정수석,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경우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국조 요구서가 의결된 이후 최대 125일간 활동하며,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는다. 위원 수는 18명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조사계획서는 내년 1월 12일 소집하기로 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최장 125일간으로 정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고 위원은 14명에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주 기획조정실장, 송인창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이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닮고 싶어하는 상사'로 뽑혔다.

기재부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복수직 서기관 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최 부총리를 포함한 15명을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했다. 국장급 이상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주 기획조정실장, 송인창 국제금융정책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노형욱 관리관과 송인창 국장, 우해영 과장, 이형일 과장은 지금껏 세 차례에 걸쳐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전민정 기자 puri21@

이주영發 '중폭 개각' 수면위로

총리·장관 6~7명 교체설
김기춘 경질·3인방 살리기?



이주영〈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연말연시 개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살리기 위해 장관급 6~7명 정도를 교체하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우선 교체 대상으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꼽힌다. 정 총리는 후임 총리를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임기가 연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관리형 총리 대신 국정 주도형 총리를 임명해 정부 개혁의 총대를 멜 적임자를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장관 중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각 대상 1순위다. 최근 '땅콩 회항' 조사 과정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데다 부동산 대책 등 경제 살리기 최우선 부처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KB사태 책임 등으로 눈밖에 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 소문도 무성하다.

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정권 출범 초부터 부처를 이끌어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도 개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각이 단행되면 후임으로는 정치인 출신이 대거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정권 중반기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중진의원 출신들처럼 인사 잡음이 적고 추진력 있는 인물이 적임자란 점에서다.

실제 차기 총리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거론되는가 하면 해수부 장관에 친박계 유기준·윤상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청와대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최근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교체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권에선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한솥밥을 먹어 온 문고리 3인방을 내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드물다. 전향적으로 개편을 진행해도 김 실장과 일부 수석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김의중 기자 zerg@

'원전 해커' 협박 시한 성탄절 2차 파괴 경고

한수원 "위험 제로" 장담하지만…

"제어망 두 단계로 외부와 완전차단"

전문가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원전반대그룹'이 고리1, 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을 성탄절로부터 3개월간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한수원의 원전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원전반대그룹은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한 글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10여만장을 갖고 있다면서 성탄절부터 원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바이러스를 암시하는 이들의 발언을 종합할 때 언급된 2차 파괴는 자신이 미리 심어둔 바이러스를 실행시켜 원전 제어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모든 상황이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가동이 중단되고 전기공급이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한수원은 자동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수동으로 전환해 가동할 수 있다는 견해이지만 이 경우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반대그룹의 위협처럼 실제로 원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제어망이 두 단계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있어 사이버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제어시스템의 분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고려할 때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 원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해외 사례에서 보듯 해킹 등으로 원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므로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 문제 발생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아기 호랑이·사자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후 80여일 된 아기 호랑이와 사자가 성탄트리 앞에서 사육사가 준 선물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증거인멸 지시·교사' 조현아 오늘 영장청구

국토부 소속 조사관 수사여부 검토

조사때 19분 동석 임원도 구속 방침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24일 오전 중으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토부 소속 조사관 김씨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씨는 비행기 회항 당시 강제로 내려진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조사 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가 조사를 벌일 당시 19분간 동석했던 대한항공 여모 상무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여 상무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인멸 상황을 수시로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KB 전산비리' 임영록 전 회장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KB금융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3일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출석한 후 24일 오전 1시께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L사가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주식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회장과 고려신용정보는 당시 L사 주식을 각각 6.22%, 4.04% 갖고 있었다. 윤 회장은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IPT 사업자 선정에 임 전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김재열(45) 전 전무가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거 때 임 전 회장과 경쟁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IT업체 C사를 사업에서 밀어내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의혹… 공정위 "조사할 계획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허니버터칩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지만 당장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는 수요와 공급량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인기 상품과 비인기 상품을 같이 사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해태제과 또는 유통업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편의점 같은 개인 소매상들이 허니버터칩을 음료나 다른 비인기 과자와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유통업계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삼성, 블랙컨슈머 대응 달라졌다

"갤럭시폰에 재생 아몰레드 사용"

사진·동영상 미끼로 삼성 취업 요구

거절당하자 거짓유포… 결국 철창행

전자업계 타깃 악성소비자 급증에

기업, 도 넘은 행태 법적 대응 나서



"삼성 스마트폰에 재생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사용됐다."

최근 한 IT커뮤니티에 올라온 '이게 삼성 갤럭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글을 쓴 조모(20)씨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4 등 주력 스마트폰에 재생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작업장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조씨의 글에 댓글이 많게는 10만개가 달리며 루머가 삽시간에 확산되자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재생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사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진실공방 며칠 만에 조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3일 삼성전자가 중고 액정으로 휴대폰을 제조·판매한다는 거짓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씨가 회사의 명예훼손과 막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을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신분증을 조작해 자신을 삼성 직원이라고 속였으며,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은 그가 삼성전자의 1차 하청업체에서 3주 가량 근무하면서 연출해 찍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미끼로 삼성전자에 취업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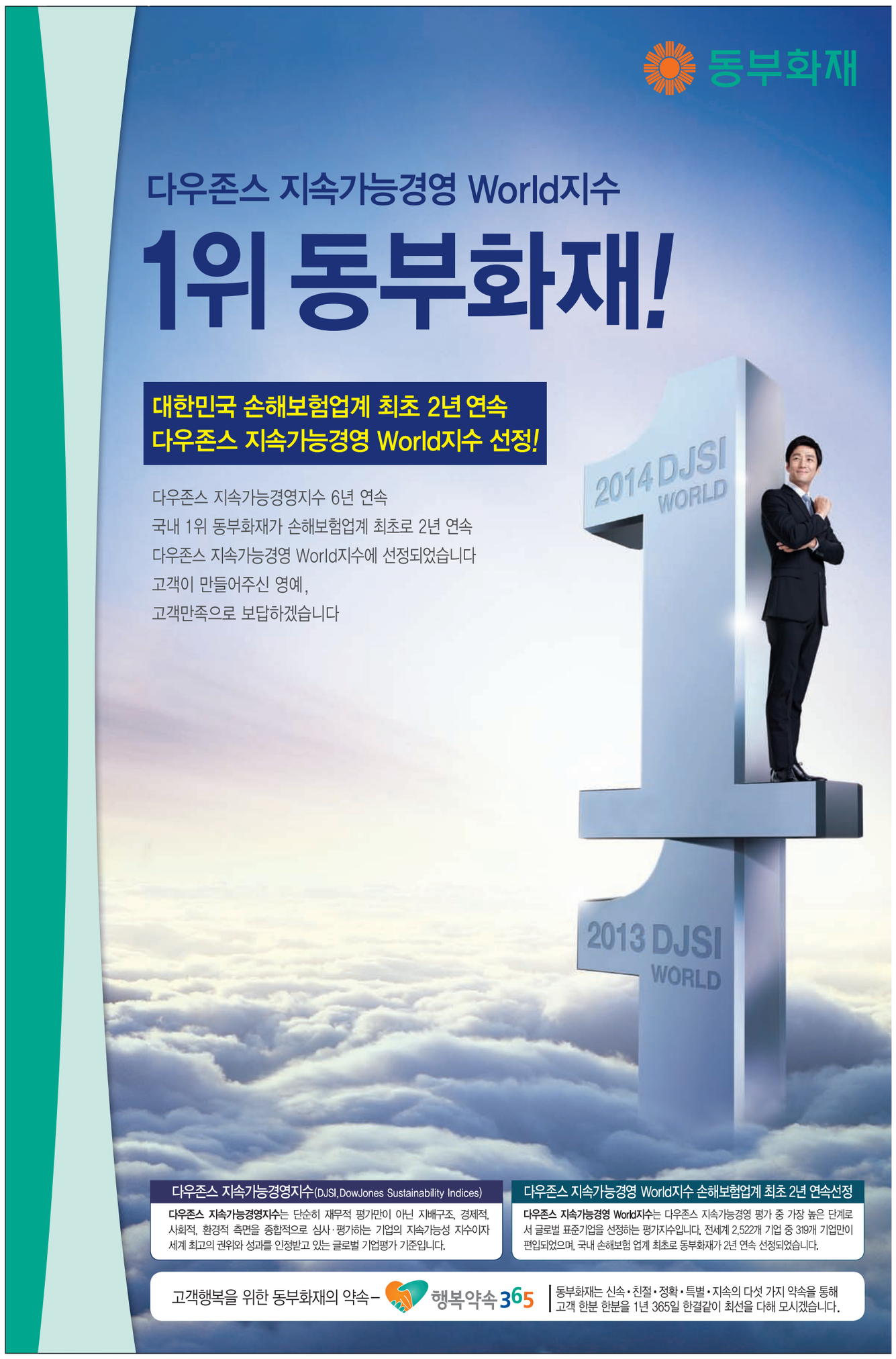
이번 삼성전자의 단호한 대응은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기업들은 소비자의 입소문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대부분 블랙컨슈머 문제를 덮어왔다. 특히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등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많이 하는 업계의 특성상 전자업계는 악성컨슈머의 단골 타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정도를 넘어선 과잉보상 요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기업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멀쩡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수리를 맡긴 제품에 저장된 자료가 사라졌다고 난동을 부리는 등 206차례에 거쳐 삼성전자를 상대로 2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이모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고의로 전압을 가해 연소시킨 LG전자 스마트폰이 갑자기 폭발했다고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회사원 김모씨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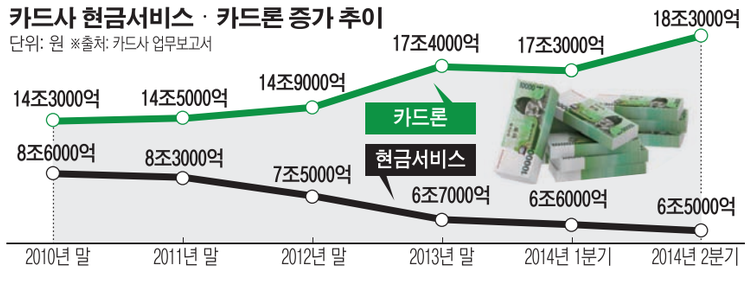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300대 기업 중 소비자의 악성 불평 및 행동을 경험한 기업의 비율은 2007년 39.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2011년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비율은 83.4%로 크게 늘었다. 과거와 달리 블랙컨슈머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확산이 빨라졌고,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과 유형도 점점 다양해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악의적인 억지 주장이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 및 고발에 나서는 쪽으로 대응 방식을 바꾸는 추세"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카드론 18조 돌파… 가계부채 '경고등'

1년6개월동안 3조4000억 급증… 대손율 상승 위험
현금서비스는 전분기보다 1000억 줄어 3년째 감소세
1개월 이상 연체율 3% 내외… 보수적 위험 관리 필요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이 지난 1년 6개월간 무려 3조4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대손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카드론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카드론 대출이 급증한다는 점은 신용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금융업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누적 카드론 이용실적은 1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17조3000억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12년 말 14조9000억원과 비교할때 1년6개월간 무려 3조4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여신금융업 가계신용 통계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업무보고서를 참조한 것으로 한국은행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카드론 이용실적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반면 현금서비스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분기 6조9000억원이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올해 1분기 6조6000억원, 2분기 6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카드대출에서 현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돼 왔다. 2011년 80.2%였던 카드대출 중 현금서비스 비중은 2012년 75.2%로 줄어든 뒤 지난해엔 70.6%로 떨어졌다. 반면 카드론 비중은 2011년 19.8%에서 2012년 24.8%, 지난해 29.4%까지 확대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취급 금지 등 카드대출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현금서비스 리볼빙 취급을 금지했다. 따라서 보다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긴 카드론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고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카드사들의 수익이 늘고 있다면 카드 대출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본업인 신용판매가 증가하면 취급할 수 있는 카드대출의 비율이 늘어나 카드 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카드 회원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대손율 상승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약 3%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 가계 부분의 부실 위험이 상존한다.

카드론은 대출 절차의 간편성 때문에 다중 과다채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카드론 연체율 상승은 주로 다중채무자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내년도 카드사업 전망 보고서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자산 연체율은 신용결제 자산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며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내년 카드대출에 대한 보수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인터넷은행 자회사 만들겠다"

권선주 기업은행장 내년 설립 검토
통합 플랫폼 'IBK 원 뱅크' 출범
창구상품, 온라인 가입 가능하게



권선주(사진) 기업은행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품 가입은 물론 대출에 이르는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스마트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권 행장은 23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행장은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질문에 "아직 보안과 본인인증 등 법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젊은 세대 중심으로 급격하게 고객이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 형태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해 정부의 흐름에 동조하려는 의견을 나타냈다.

권 행장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핀테크 흐름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옴니채널'(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무는 이용환경)로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행장은 "내년에 통합 플랫폼인 'IBK 원(ONE) 뱅크'를 출범할 계획"이라며 "간단한 상품가입은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30여개인데, 법적 규제를 받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창구 가입 상품 대부분을 비대면 채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 및 뱅크월렛 카카오와의 제휴 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의 탈(脫) 중국화 추세에 맞춰 인도 뉴델리 사무소의 지점 전환 등 중국 이외 진출을 늘릴 예정"이라며 "지분투자와 인수·합병 형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이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벤처투자팀(TF)을 만들어 초기벤처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을 소개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악사손보, 내년 350억 유증

RBC비율 업계 최저수준 하락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이 2년여만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지급여력(RBC)비율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3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발행주식은 500만주이며 주당 발행가격은 7000원(액면 5000원)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지분율 99.55%)인 AXA.S.A가 전액 출자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일은 내년 2월4일부터 5일까지이며 11일 납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악사손보는 최근 3년간 5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2012년 3월 150억원 규모로 실시한 이후 약 2년 10개월여 만이다.

악사손보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RBC비율이 업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악사손보의 RBC비율은 130.4%이다.

악사손보의 RBC비율이 취약한 원인은 자동차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0% 초반이 적정수준으로 알려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업계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83.4%(2012년), 86.8%(2013년), 86.0%(올 9월 현재) 등 80%를 크게 웃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중도 해지해도 100% 환급

교보라이프 '꿈꾸는e저축'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인터넷 전업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국내 보험사중 최초로 언제 해지해도 100% 환급률을 보장하는 저축보험 상품을 내년 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판매 개시 예정인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보험상품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상품이다. 가입 1개월 만에 해지해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 지급한다.

100% 환급율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회사측은 국내 최초로 공시이율과 연동된 사업비 부과 방식(후취형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시점에 발생한 이자가 없다면 사업비 차감도 없어 100% 이상 환급이 가능하다. 즉, 공시이율이 낮아질 경우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는 상품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신한은행, 인천 소상공인 지원



신한은행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왼쪽 3번째)은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대상'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2번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인천 소상공인중 창의적인 경영활동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실적 부진' 칸왈 SC은행장 전격 교체

'첫 한국인' 행장 박종복 내정…기업금융 중심 개편 가능성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결국 행장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 SC은행이 취임한 지 8개월 남짓된 아제이 칸왈 행장을 한국인으로 전격 교체한 것은 외국인 행장으로는 현지화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첫 한국인 행장 내정은 최근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소매금융 부문의 전면 개편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C은행은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행장으로 박종복(사진)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을 선임했다. SC금융지주도 조만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해 박 부행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박 부행장은 내년 1월 8일 SC금융 회장 겸 SC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한국인 행장이 선임된 것은 지난 2005년 SC의 제일은행 인수 이후 처음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행장 교체를 소매금융 개편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소매금융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SC은행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SC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금융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

행장 교체를 계기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칸왈 행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SC은행은 올 상반기 386억원 순손실을 기록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10년 7.99%에서 지난해 3.63%까지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본사 차원의 추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SC은행, SC금융지주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각각 2001년과 2005년, 2010년 SC의 신용등급을 처음 'AAA'로 평가한 이후 한 번도 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변경한 적이 없다.

김민지 기자 kimmj@

현대라이프, 제로보험 쇼핑몰 판매 늘린다

유가증권 형태…일부 결제거부 걸림돌

현대라이프가 선불카드 형태로 판매중인 제로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가 제로보험을 이마트몰(4월),옥션(6월),GS숍(10월)에 입점시킨데 이어 이달 말까지 현대H몰 입점을 위해 현대홈쇼핑과 협의중에 있다. 또 롯데몰에서도 테스트 차원으로 제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라이프가 판매하고 있는 제로보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험 선불권을 구매한 뒤 현대라이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면 보험 가입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 판매 방식이다.

문제는 제로보험이 유가증권인 선불권 형태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 문제가 판매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특성상 카드결제가 되지 않으면 판매로 이어지기 어려운데,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은 유가증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내부 방침상 거부하고 있다.

이마트몰의 경우 현금 및 예치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 규정을 지난달 해소해 최근에서야 카드로 제로보험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롯데닷컴에서 운영하는 보험몰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구귀 기자 kkk@

정부, 내년 서민금융 맞춤 지원 나선다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휴면예금 출연 무기한으로 연기

내년 하반기 맞춤형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한다. 또 휴면예금 출연 기간이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총괄 기구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민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하반기에 설립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자활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개인이 받은 금융사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계정이 진흥원 내에 설치돼 개인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대출전환에 대한 보증공급을 제공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금 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동양생명 "연탄배달 왔습니다"



동양생명은 23일 연말을 맞아 구한서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임직원 100여명이 서울시 개포동 구룡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송년행사를 겸해 이뤄진 강남사업단 봉사활동 행사장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독거노인 가정 등 13가구에 연탄 200장씩 총 2600장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동양생명

빙판길·송년회… 12월 車사고 가장 많아

최근 5년 평균 사고율 26.5%
긴급출동서비스 건수도 최다

12월에 자동차사고 발생과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09년 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월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의 월평균 사고율이 26.5%로 1년 중 가장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가장 사고율이 낮은 3월(22.5%) 대비 4.0%포인트 높은 것이다.

1~3월에 사고율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을 저점으로 반등해 12월까지 상승하는 추세가 일반적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12월은 빙판길로 인해 대형사고가 많고 송년회 등 연말연시 느슨해진 분위기와 음주운전 등도 사고 증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긴급출동서비스 이용건수를 조사한 결과, 12월 평균 이용건수가 182만7000건(12.5%)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가장 적은 달은 6월로, 평균 97만2000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출동서비스 가운데 배터리 충전은 연간 실적의 16.0%가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겨울철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면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균 3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나눌수록 더 행복한* 적금

나눌수록 세상은 더 행복해지기에
KB사랑나눔적금이 기부와 봉사의 기쁨을
우대이율로 돌려드립니다.
나눌수록 더 행복한 세상,
고객과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KB사랑나눔적금]



KB사랑나눔적금

기부금 : 기부왕 우대이율 및 봉사왕 우대이율 등록 건당 500원을 기부금으로 출연하며 기부비용은 KB국민은행이 부담합니다 (1계좌당 최대 1,000원)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공동 명의 불가)
- **저축금액 :** 매월 1만원이상 30만원 이하 (원 단위)
- **상품유형 :** 정액적립식 예금
- **계약기간 :** 3년제
- **세제관련 :**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가능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 (세금공제 전, 2014.12.17 기준)

*** 기본이율 : 연 2.8% / 우대이율 : 최고 연 1.0%p**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 충족 시 적용)

[기부왕] : 연 0.3%p 우대 ('계약기간 중 기부 또는 후원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봉사왕] : 연 0.3%p 우대 ('계약기간 중 봉사활동을 실시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천사 1004] : 연 0.4%p 우대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시점의 총 저축금액(원금)이 1,004만원 이상인 경우)

*** 최종이율 :** 최저 연 2.8%~최고 연 3.8% (최고이율은 기부왕, 봉사왕, 천사 우대이율 모두 적용 시)

※ 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VMS, 1365 등)을 통해 출력한 인증서 외에 수기로 발급한 인증서는 봉사왕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각 상품의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공하며, 특약 변경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662호(2014.12.16)

KB 국민은행

삼성 시스템반도체 다시 '기지개'

'14나노 모바일AP' 한국·미국 동시양산
3월 출시 애플워치 'S1' 탑재 등 호재도
시스템LSI사업부 내년 흑자전환 기대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의 애물단지였던 시스템LSI사업부가 내년 흑자 전환하며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14나노 핀펫 양산을 시작하며 시스템반도체 실적 회복의 시동을 걸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경기도 기흥공장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공장에서 14나노 핀펫 양산을 위한 웨이퍼를 투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위탁생산(파운드리)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부터 주요 고객사에 모바일 AP를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AP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14나노 핀펫 공정을 적용하면 기존 20나노 공정과 비교해 전력 소모량은 30% 줄어드는 반면 성능은 20% 이상 향상된다. 10나노대 공정을 갖춘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지난 2010년 '갤럭시S'부터 자체 AP를 탑재하며 성장세를 나타내던 삼성전자의 AP는 지난해 초 내놓은 '엑시노스5 옥타'가 LTE-A 지원 문제로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되지 못하면서 하향세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4'와 '갤럭시노트3', 올해 상반기 선보인 '갤럭시S5'에는 모두 미국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됐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 공개한 '갤럭시노트4'에는 자체 모바일 AP '엑시노스 5433'이 탑재됐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크게 줄어든 점도 시스템반도체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파운드리 매출의 약 80%로 추산되는 애플용 모바일 AP 위탁생산 물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시스템LSI사업부 실적도 함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스템LSI사업부 영업이익은 지난해 감소세를 지속,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 증권사 추정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수십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시스템LSI사업부는 2~3분기 적자 규모가 3000억~5000억원대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14나노 핀펫 양산 시작을 통해 시스템LSI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본격화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출시 예정인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에 사용된 'S1', 내년 하반기 출시가 점쳐지는 애플의 차기 아이폰에 적용될 'A9' 등의 양산을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퀄컴과 AMD도 삼성전자의 잠재적 고객군으로 평가된다.

반도체부문 실적을 떨어뜨렸던 시스템LSI사업부가 내년 3분기경 흑자로 돌아서면 반도체부문의 장기적인 실적 상승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스템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 대비 시장 규모가 세 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유통업계 "반갑다, 강추위"

겨울의류·난방기기 매출 급증… 한달 만에 증가세로

12월 들어 연일 영하권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유통업계가 모처럼 실적 부진을 털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마이너스 신장했던 패딩, 다운, 모피, 난방기기 등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추위가 뒤늦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기존점 기준) 7.9%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매출이 4.7% 늘어났다. 롯데백화점의 11월 매출이 지난해 대비 0.5% 소폭 늘고,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이 2.6%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한 달만에 매출이 급반등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실적 상승세는 패딩·다운, 모피 등이 이끌었다. 지난달만해도 롯데백화점 패딩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고, 모피도 12.1% 줄었다. 아웃도어도 5% 가량 감소했고, 장갑과 머플러도 10.1% 줄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모피(16.2%)와 아웃도어(33.1%), 패딩·다운 (27.4%) 등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아웃도어(24%)와 머플러·장갑·목도리의 잡화류(9%)의 판매가 매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2월에 객단가가 높은 헤비다운이 주력 상품이 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매출도 이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0.9%, 2.9% 줄었으나, 이마트의 12월(1~21일) 매출은 지난해 대비 3.4%, 롯데마트는 3.6% 증가했다.

마트의 실적 상승은 의류와 난방기구가 이끌었다. 지난달 이마트의 패션·레포츠 용품은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3.6% 늘어났고, 가전용품 판매는 10% 신장했다. 롯데마트도 여성의류(23.7%), 장갑·모자(6.1%)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하이마트도 이달 들어 겨울용 난방제품의 판매액이 직전 2주간 판매액보다 약 80% 늘었다. 집안 월동준비 용품의 매출도 100%가량 증가했다.

이선애 기자 lsa@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직원들에 격려 케이크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국내외 임직원에게 고마움을 드러내며 연말 케이크 선물 이벤트를 진행했다. LG디스플레이는 23일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한상범 사장이 직접 준비한 케이크 등을 전달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국내외 5개 생산법인에서 진행했다. LG디스플레이의 파주, 구미, 서울 본사에는 팀 단위로 총 1600여개의 케이크가 배달됐다. 또 중국 광저우(모듈 및 패널), 옌타이, 난징, 폴란드 브로츠와프 등 해외 생산법인에서 근무하는 2만여명이 넘는 임직원들에게는 간식 세트가 제공된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중기인이 꼽은 내년 사자성어

"필사즉생"

〈必死則生 :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내년 경영환경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필사즉생(必死則生)'을 꼽았다. 내년 역시 경영환경이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3명중 1명(33.3%)이 내년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필사즉생'을 선택했다. 이어 '거주양난(去住兩難)', '속수무책(束手無策)'도 각각 27.4%, 13%로 나타났다. 내년 역시 또 위기가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어도 해결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중소기업인들도 있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하겠다는 뜻의 '극세척도(克世拓道)'가 11.4%를, 묵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펼친다는 뜻의 '제구포신(除舊布新)'도 11%를 차지했다. 내년을 위기로 전망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재편 등을 통해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김정유 기자 thec98@

항공업계 "고맙다, 저유가"

내년 영업익 대한항공 80%·아시아나 181% 증가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땅콩 회항 파문과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에 따른 운항정지 악재에도 내년에 호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유가 하락 폭이 워낙 커 이들 악재가 내년 이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절감으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각각 80%, 1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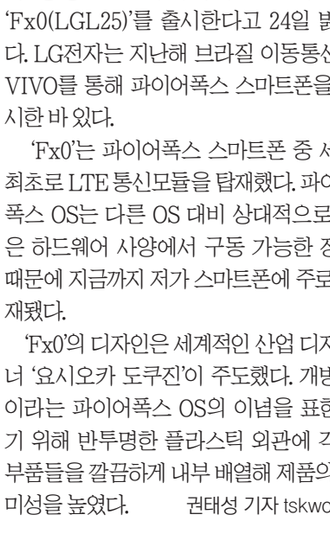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기준 유가는 지난 6월 고점 대비 47%가량 하락했으며 올해 평균은 95달러다. 증권업계는 내년 이익 추정을 위해 WTI 유가가 20%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WTI 유가는 올해 85달러에서 내년 76달러로 하락하고 항공유가 역시 올해 115달러에서 내년에는 92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현재 항공유가는 배럴당 75달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 사용량을 각각 3200만배럴, 1550만배럴로 가정하면 연평균 항공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내려갈 경우 연간 유류비는 각각 3360억원, 1630억원 절감되고 영업이익이 각각 1680억원, 814억원 개선된다. 만일 내년 항공유가가 배럴당 23달러 하락하면 대한항공의 내년 영업이익은 7618억원, 아시아나항공은 2985억원에 달해 올해보다 각각 80%, 181%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최근 '땅콩 회항' 파문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운항정지를 앞두고 있음에도 내년 실적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과 관련해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인천-뉴욕 노선에서 21일 운항정지 또는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이미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윤희도 연구위원은 "두 항공사 모두 나름의 이슈가 있지만 폭락한 유가를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악재가 되지 못한다"며 "저비용항공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영업환경은 달라질 게 없지만, 유가폭락으로 내년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LG전자의 파이어폭스 스마트폰 'Fx0'

LG전자, KDDI와 함께 파이어폭스폰 일본 출시

LG전자가 일본 스마트폰 업계 최초로 파이어폭스 OS(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LG전자는 일본 이동통신사 KDDI와 공동으로 파이어폭스 스마트폰 'Fx0(LGL25)'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브라질 이동통신사 VIVO를 통해 파이어폭스 스마트폰을 출시한 바 있다.

'Fx0'는 파이어폭스 스마트폰 중 세계 최초로 LTE 통신모듈을 탑재했다. 파이어폭스 OS는 다른 OS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하드웨어 사양에서 구동 가능한 장점 때문에 지금까지 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됐다.

'Fx0'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요시오카 도쿠진'이 주도했다. 개방형이라는 파이어폭스 OS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반투명한 플라스틱 외관에 각종 부품들을 깔끔하게 내부 배열해 제품의 심미성을 높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옐로모바일' 군단, 신사동으로 헤쳐모여

굿닥·쿠차 등 11개 가족사 같은 빌딩 입주… 시너지 효과 기대

공룡벤처 옐로모바일이 인수한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 신사동에 '연합거점'을 만들었다.

24일 옐로모바일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신사동의 J타워 빌딩에 옐로모바일 가족사 66곳 중 11곳이 입주를 완료했다. 이들은 옐로모바일 지원본부를 비롯해 1km, 굿닥, 다이어터, 레코벨, 이노버즈, 정글피플, 지하철, 쿠차, 쿠폰모아, 피키캐스트 등 11곳이다. 빌딩의 2~5층 등 총 4개 층에 각 층별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옐로모바일의 가족사 임직원은 1800명에 달하며 이중 350여명이 이곳에 모여 있다.

옐로모바일의 사업 전략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크로스마케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크로스세일즈'로 구분된다. 가족사끼리 서로에게 부족한 마케팅과 영업 등을 지원하며 규모를 점점 크게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곳은 굿닥이다. 굿닥은 옐로모바일에 인수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매출이 1000만원에 불과했다. 한 달 비용은 200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옐로모바일에 인수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또 다른 가족사인 쿠차에 굿닥의 콘텐츠를 등록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달 굿닥의 월 매출은 2억7000만원을 기록해 인수되기 전보다 27배나 증가했으며, 적자였던 것도 1억70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굿닥뿐이 아니다. 쿠차도 TV광고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가족사와 연계한 결과 올해 7월 4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15억원까지 매출이 올랐다.

임진석 옐로모바일 전략총괄이사는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족사끼리 도와주며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회사들인만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중견기업 전용 '희망엔지니어 적금'

우수인력 장기재직 지원 목적
생산·마케팅 인력도 가입 가능
'은행 역마진·기업유치' 숙제도

'중견기업 전용'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기존과 달리 기술인력 외에도 생산·마케팅 등 전 분야의 핵심인력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시중은행의 역마진 문제와 보수적인 중견기업들의 가입 유치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중소기업청과 하나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엔지니어 적금은 기업과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매칭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된 원리금 전액을 주는 중기청의 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이다. 3기부터는 가입대상을 기술인력 외에도 기업이 추천하는 전 분야의 핵심인력으로 확대되며, 대상기업도 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뀐다.

가입금액 역시 기존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였으나, 3기부터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며 기업과 근로자 매칭비율도 자율화된다. 참여 은행인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최고 수준의 우대금리(최대 4.05%)를 적용한다.

중견기업 전용으로 개편됐지만 여전히 우려는 있다.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해 온 하나은행이 꾸준히 역마진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최근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중은행 최고 수준의 우대금리 적용은 은행 입장에선 적금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정부 사업이지만 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속 협력하기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올 초엔 희망엔지니어 적금 폐지까지 논의됐을 정도로 사업 근간이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유 기자 thec98@

'뉴 푸조 2008' SUV돌풍 이끈다

합리적 가격·뛰어난 연비…
1주일 만에 사전예약 1000대



'뉴 푸조 2008'(사진)이 내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돌풍의 핵으로 꼽히고 있다. 소형 SUV로서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연비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시장에서 SUV는 지난 10월까지 전년 대비 16.9% 성장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SUV 열풍은 젊은 소비층의 확대와 식을 줄 모르는 캠핑, 레저 등 아웃도어 라이프 인기에 힘입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푸조는 올 하반기(지난 10월) 출시한 뉴 푸조 2008이 SUV 전성기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차는 사전계약 시작 1주일 만에 1000대 판매를 돌파하며 흥행을 예고했다.

뉴 푸조 2008의 강점은 연비와 가격이다. 17.4㎞/ℓ라는 뛰어난 연비는 물론, 2000만원대에서 시작되는 낮은 가격으로 국산차를 위협하고 있다. 엔진은 1.6 e-HDi를 탑재했으며, 6단 전자제어 자동변속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최대 출력은 92마력, 최대 토크는 23.5kg.m이며,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엔진회전구간(2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시원한 주행을 자랑한다.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실용성도 이 차의 장점이다. 뒷 좌석 탑승자를 위해 앞 좌석 등받이 두께를 얇게 조정했고, 센터 콘솔과 도어 등 차량 곳곳에 수납공간은 물론 컵 홀더 등이 마련돼 있다. 트렁크는 6대 4 분리형 2열 시트로 공간을 편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트렁크 바닥 2열 시트에 5개의 레일이 설치돼 있어 트렁크 앞까지 적재물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역동적인 곡선을 활용한 세련된 외관 디자인, 대형 터치스크린과 헤드업 클러스터를 앞세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플러스 요인이다. 뉴 푸조 2008는 '악티브'(2650만원), '알뤼르'(2950만원), '펠린'(3150만원) 등, 3가지 모델로 국내 출시됐다.

김범근 기자 nova@



코웨이 유구공장 생산팀 직원이 '스스로살균 가습공기청정기'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웨이

황사부터 미세먼지까지 '쏙' 코웨이 공기청정기 판매 '쑥'

전체 물량 중 40% 이상 수출
올해 이어 내년 생산량 30% 증가
중국 공급 OEM 제품도 늘어나
해외시장 공략 첨병 역할 자리매김

"올해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도 생산량을 30% 정도 증량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공기청정기 물량만 20% 늘리면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2015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코웨이 김동화 유구공장장(상무)의 자신 있는 포부다. 코웨이의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류 대부분을 생산하는 유구공장인 만큼, 이 같은 계획은 내년도 코웨이 전체의 사업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공기청정기를 찾는 시장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다.

충남 유구공장은 코웨이의 '생산 허브'로 불린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을 연간 136만대 생산할 수 있으며, 정수기만 따지면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이런 유구공장에서 최근 효자 제품으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기청정기다.

김 공장장은 "최근 수출 물량이 전체의 40% 이상될 정도로 공기청정기가 효자 제품이 됐다"며 "중국시장에 공급하는 OEM 제품도 내년부터 늘어날 계획이어서 해외시장 공략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올해 12월 기준 유구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110%에 달한다. 특히 지난 9월부터 가습공기청정기 생산량이 늘고 있다. 최소 생산 시기인 8월 대비 11월 생산량이 약 600% 증가했을 정도다. 올해 가습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전체 공기청정기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코웨이 양현진 유구공장 생산팀 과장은 "청정기와 정수기 생산 비중은 55 : 45 정도"라며 "특히 가습 공기청정기는 유구공장에서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유구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셀 라인(CELL-LINE)' 생산 방식이다. 첫 공정부터 최종 공정까지 1~2인이 담당하는 자기 완결형 방식으로, 코웨이 유구공장은 이를 통해 생산성을 3배나 끌어올렸다.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 올라선 숙련 근로자들이 셀 라인을 맡고 있다. 양 과장은 "셀 라인에선 하루에 1인당 약 200~250대를 생산한다"며 "바코드식으로 생산자, 생산시기 등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불량에 대한 피드백도 빠르다"고 언급했다.

최근엔 코웨이가 지난달 출시한 '스스로 살균 가습 공기청정기'의 생산라인이 가장 활발한 편이다. 전체 4개 청정기 생산라인 중 3개를 가습 공기청정기 생산으로 돌리고 있다. 실제 스스로살균 가습 공기청정기는 전체 8공정으로 이뤄진 라인을 통해 하루에 705개(10시간 기준)가 생산되고 있었다. 제품 1대를 만드는 데 약 48초가 걸리는 셈이다. 신제품이다 보니 아직 생산 효율성이 낮은 편이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가습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코웨이의 생산 허브인 유구공장으로서도 설비 증설 고민이 크다. 하지만 당분간 증설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공장장은 "증설 없이 공정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년엔 30% 증량 계획을 잡고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꾀했던 만큼, 앞으로도 효율성을 높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욕실 건축자재 써보고 결정하세요"

제품 구매부터 체험까지 '원스톱' 해결
대림 바스플랜 중곡동에 '쇼룸' 오픈
로열&컴퍼니도 '팝업 스토어' 서비스



대림 바스플랜이 최근 오픈한 중곡동 직영 쇼룸 전경. 사진제공 대림 바스플랜

국내 욕실 건축자재 업계가 제품 구매와 체험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편의성은 물론, 소비자 개성을 담아낼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최근 패키지 형태로 제품 판매를 진행하는 욕실 건자재 업체들의 마케팅 트렌드가 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림 바스플랜은 최근 서울 논현동에 이어 중곡동에 두 번째 직영 쇼룸을 오픈했다. 이 쇼룸은 11가지 바스플랜 세트와 욕실 단품류를 통합 전시하고, 최근 일본에서 단독 수입한 욕실 소품도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이 욕실 디자인부터 소품까지 일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종합적인 욕실 컨설팅 서비스도 진행된다. 고객들과 1 : 1 심층 상담을 통해 욕실 디자인에서부터 설계·시공, 애프터서비스(A/S),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

대림 바스플랜 관계자는 "중곡동 직영 쇼룸은 고객이 욕실 제품과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부담없이 쉴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 존과 커뮤니티 존이 마련돼 있다"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따질 시간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욕실 인테리어숍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2위 업체인 로열&컴퍼니도 '팝업 스토어' 개념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로얄컴바스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눈길을 끌었다. 역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다. 로열&컴퍼니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팝업 스토어는 B2B 시장에 주력해 온 욕실 제품의 한계를 넘어선 시도"라며 "제품 체험부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처음 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유 기자 thec98@

타보니

현대자동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연비 21.8km… 순간 속도 100km '최강 파워'

국내 중형차 최초 '관성 주행안내'
최고출력 156마력 동급 최고 성능



현대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가 22일 인천 일대의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연비 운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차다. 급가속, 금정거를 하지 않고 정속 주행할 경우 리터당 20km도 거뜬했다.

22일 LF쏘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인천 하얏트호텔을 왕복하는 약 85km 구간을 달렸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연비였다.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전기모터, 두 개의 심장으로 달리는 만큼 높은 연비가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최대한의 연비를 측정해 보고자 모터 구동을 최대화한 정속 주행에 힘썼다. 그 결과 최종 연비는 리터당 21.8km를 기록했다. 이 차의 복합연비가 리터당 17.7km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리터당 4km 이상 더 나온 셈이다.

현대차는 LF쏘나타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의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다. 전륜 휠 아치에 에어커튼을 적용하고 지능형 공기유입 제어장치(액티브 에어플랩)를 라디에이터 그릴 후면에 배치해 공기 유입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또 공기 역학적 디자인의 전후 범퍼 및 펜더와 리어 스포일러를 통해 공력 성능과 연비 효율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국내 중형 최초로 적용된 '관성 주행 안내'로 운전자의 연비운전을 돕는다. 관성 주행 안내는 진행 방향 변경 또는 톨게이트 등 감속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 분석 정보를 받아 액셀러레이터 해제 또는 브레이크 사용 시점을 계기판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로써 불필요한 연료 사용을 줄이고 연비를 향상시켜 준다.

연비만 좋은 게 아니다. 고속 구간에서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만 올려놓아도 시속 100km를 훌쩍 뛰어넘었다. 현대차 하이브리드는 연비만 좋고 힘은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출력도 신경썼다.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누우 2.0 직분사(GDI)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을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 최초로 탑재, 기존 제품 대비 4% 향상된 최고출력 156마력(ps)을 자랑한다. 또 5.5% 향상된 최대토크 19.3kg.m로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확보했다. 더불어 엔진과 함께 출력을 담당하는 '38kW급 하드타입' 전기모터는 기존보다 출력을 8.6% 향상시켰다.

김범근 기자 nova@



광명역세권 호가 1억 껑충 '이케아 효과'

코스트코·롯데아울렛 쇼핑몰까지… 인근 부동산 시장 활기
신규분양 '효성해링턴 타워'…복합단지 '엠시에타' 사업 재개

광명역세권 부동산 시장이 전문 브랜드 및 거대 유통기업의 입점으로 혜택을 입고 있다. 세계적 가구 전문 브랜드인 이케아 한국 1호점(면적 5만9000㎡)이 지난 18일 광명에 문을 연 이후 대규모 인파를 끌어들이며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광명역세권 지역은 이케아 외에도 이미 영업 중인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를 비롯해 지난 5일 개점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 등이 몰려 있다. 또한 KTX 광명역이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KTX를 이용하면 전국 각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입지조건에 편의시설까지 갖추면서 광명역세권 인근 부동산 시장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이케아 광명점 뒤편에 위치한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아파트는 2010년 12월 3억1000만원에 분양한 전용면적 113㎡형이 현재 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또한 인근 소하동에서 2008년 분양된 '신촌 휴먼시아' 아파트도 이케아 호재를 톡톡히 누리며 호가가 분양가보다 1억1000만~1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최근 신규 분양 시장도 뜨겁다. 대우건설이 지난 10월 분양한 '광명역푸르지오'는 평균 3.7대 1의 청약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했으며 계약 일주일 만에 100% 완판을 기록했다. 연이어 분양한 GS건설의 '광명역파크자이'도 아파트 731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통장만 8000개 넘게 몰리며 1순위가 마감됐고 역시 100% 계약을 기록했다.

때문에 건설사들도 광명역세권에 신규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이케아(IKEA) 국내 1호 매장 오픈 첫날인 18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효성은 내년 1월 '광명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오피스텔은 이케아와 롯데프리미엄 아울렛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심상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광명역세권의 마지막 개발 예정지인 복합단지 '엠시에타'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8년째 사업이 지연됐지만 최근 광명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자 시행사가 주거시설 1500여 가구를 내년 분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성헌 기자 carlove@

3.3㎡당 2000만원 넘는 전세, 1년새 2배↑

3만2968가구… 모두 서울에

전세가격이 3.3㎡당 2000만원을 넘는 가구 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3주차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646만885가구 중 전세가 3.3㎡당 2000만원을 넘는 가구 수는 3만2968가구로 모두 서울 지역이다.

이는 2013년 1만4736가구보다 1만8232가구 늘어난 수치로 1년 사이 전세가 3.3㎡당 2000만원을 넘는 가구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가 3.3㎡당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자치구별로 지난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올해에는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가 추가됐다.

강남구는 전세가 3.3㎡당 2000만원이 넘는 가구 수가 2013년 5074가구에서 2014년 1만6354가구로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역삼동이 4521가구로 가장 많았고, 도곡(3767가구), 대치(3683가구), 삼성(3360가구), 청담(102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9525가구로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리체 등 대단지 새 아파트가 집중된 반포동이 7114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동 1422가구, 방배동 832가구, 잠원동 157가구 등이다.

송파구는 잠실동에서 6723가구가 전세가 3.3㎡당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리센츠, 잠실엘스,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이 해당된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기업들 脫강남…송파·마곡·송도 新오피스타운 뜬다

대기업 따라 협력사도 새 둥지
문정 테라타워 등 분양률 80%

전통적 비즈니스타운인 강남역 일대가 기업들의 관심이 시들해진 반면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서울 강서, 인천 송도신도시가 신흥 비즈니스타운으로 탈바꿈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강남에 비해 송파·강동·강서 지역은 그동안 업무지구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잇따른 개발 등으로 벤처기업은 물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올해 제2롯데월드몰과 삼성SDS 본사가 잇따라 잠실에 터를 잡으면서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는 서울판 '대덕연구단지'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이곳에는 LG 컨소시엄을 선두로 롯데 컨소시엄, 코오롱 컨소시엄, 이랜드 컨소시엄, 이화의료원,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스타급 기업들이 줄줄이 입주할 예정이다.

송파, 마곡, 송도에 기업이 몰리면서 이 일대 지식산업센터의 인기도 뛰고 있다. 국내외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뒤따라 입주를 원하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정지구 내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다. 송파 문정 미래형 업무지구에서 올해 분양한 문정역 테라타워(3-1블록), 현대 엠스테이트(2블록), 현대 지식산업센터(6블록) 등은 분양률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송도 스마트밸리 내에도 현재 4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송도국제도시 중소기업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 송도는 국제기구 및 대기업 이전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내에는 GCF 사무국을 비롯해 국제기구들이 입주해 있는 G타워와 세계은행이 입주한 포스코 E&C타워가 위치해 있다. 내년 1월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NEATT)에 입주할 예정이다.


문정역 테라타워 조감도.

구성헌 기자 carlove@

추천 경매 물건

용도	소재지	건물(㎡)	감정가(원)	최저 입찰가(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계	사건 번호
아파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120동 2층 201호	114.6	630,000,000	504,000,000	80%	1월 5일	동부4계	2014-7258
아파트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271-2, 용산동6가 69-120 신동아 14동 1층 107호	167.1	1,260,000,000	1,008,000,000	80%	1월 6일	서부4계	2014-4367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 8동 11층 8124호	175.8	1,280,000,000	1,024,000,000	80%	1월 7일	남부4계	2013-33826
아파트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70,-244,-450,-459,-465 현대연예인 201동 15층 1501호	84.9	310,000,000	248,000,000	80%	1월 6일	남부5계	2014-18343
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월동 591-1 신안약수 2동 208호	87.2	280,000,000	224,000,000	80%	1월 7일	남부4계	2014-5439
아파트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434 마제스타워도농 102동 10층 1002호	129.6	620,000,000	396,800,000	64%	1월 5일	의정부11계	2014-13191
아파트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875 벽산블루밍1단지 104동 15층 1501호	101.9	272,000,000	19,040,000	7%	1월 7일	여주5계	2014-7099
아파트	경기 평택시 비전동 804 신세계타운 105동 12층 1204호	84.8	200,000,000	140,000,000	70%	1월 5일	평택1계	2014-3465
아파트	경기 군포시 당정동 1007-5 상훈 A동 10층 1001호	168.8	550,000,000	440,000,000	80%	1월 6일	안양1계	2014-9305
아파트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 210동 20층 2001호	84.6	260,000,000	182,000,000	70%	1월 5일	인천13계	2014-32849

※자료제공: 지지옥션 www.ggi.co.kr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70 ,-244,-450,-459,-465 현대연예인 = 201동 15층 1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9년 8월 준공한 6개동 735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15층이다. 전용면적은 84.91㎡, 방 3개 욕실 1개에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구일역이 단지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다. 최초감정가 3억1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4800만원이다. 입찰은 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 2014-18343.



◇서울 양천구 신월동 591-1 신안약수 = 2동 208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5년 12월 준공한 5개동 440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0층 건물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87.17㎡, 방 3개 욕실 1개에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신정내거리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계남제1근린공원, 계남다목적체육관, 신월6동골목시장 신월6동 주민센터 등이 단지 주변으로 인접해 있다. 최초감정가 2억8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2400만원이다. 입찰은 1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4계. 2014-5439.

구성헌 기자 carlove@

한양 신임 대표이사 한동영씨



한동영 한양 건축·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이 한양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경기도 화성 출신인 한동영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대림산업에 입사, 32년 이상 국내외 건설현장 및 기술개발, 공공수주 업무, 민간사업 등 건축분야를 두루 거친 국내 건축사업계의 산증인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건설 불공정행위 3건중 2건 '대금 미지급'

올 미지급 신고금액 189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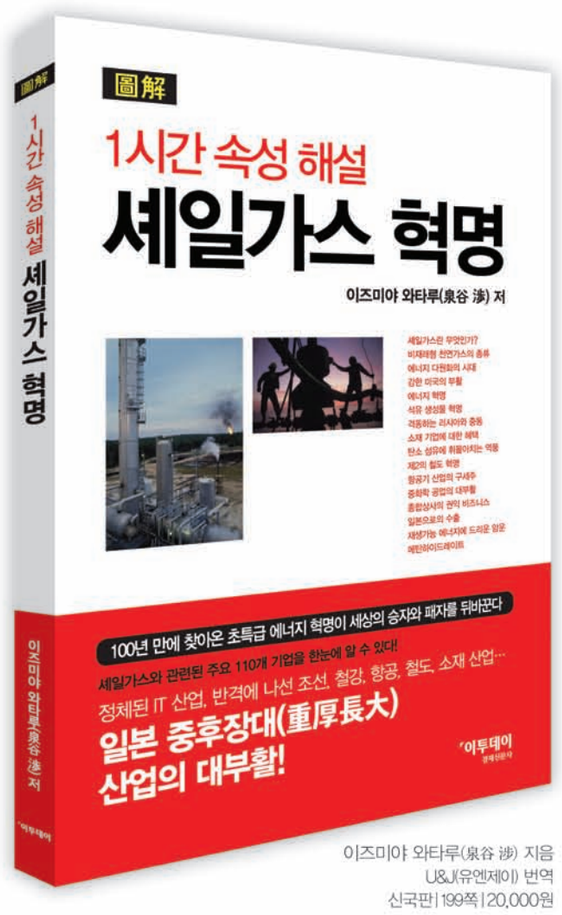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조사·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하도급·건설기계 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접수된 건설 불공정 신고는 232건이다. 신고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 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 센터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조치 현황을 보면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집계됐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인크레더블"…내년 하반기 금리인상 기정사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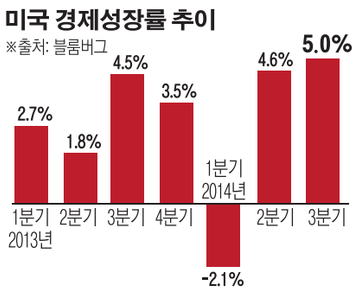
〈incredible·믿기 힘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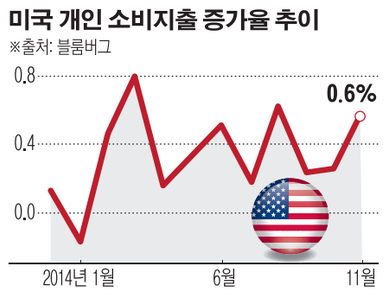
글로벌 리포트

美 3분기 성장률 5%

소비지출·개인소득 등 지표호조 낙관론 우세

연준 초저금리 밝혔지만 완만한 긴축정책 펼칠듯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NN머니는 5%라는 성장률은 '믿기 힘들(incredible)' 정도라면서 미국 경제가 고속 기어로 달리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전반적인 지표 호조에 따라 오는 2015년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상무부가 이날 GDP 성장률과 별도로 발표한 지난 11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에 비해 0.6% 증가했다. 이는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월가는 0.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개인소득은 0.4% 증가했다.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시간대와 톰슨로이터가 공개한 12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는 93.6을 기록하면서 전월의 88.8에서 크게 오른 것은 물론 지난 200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월가는 93.5를 예상했다.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전월의 102.7에서 104.8로 올랐다. 예상치는 105.1이었다.

전망도 좋았다. 6개월 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대지수는 79.9에서 86.4로 상승했다. 월가는 85.0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지수 역시 전월에 비해 0.6% 오르면서 예상보다 호전됐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체이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지출은 훌륭한 모습"이라며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고용시장은 훌륭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2015년에도 미국 경제는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유가 약세에 따른 에너지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4분기에는 성장률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는 내다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한 트레이더가 '다우18000'이라고 쓰인 모자를 쓰고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8000선을 넘기며 장을 마감했다. 뉴욕/EPA연합뉴스

데이비드 버슨 네이션와이드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분명한 것은 미국이 지금 글로벌 경제의 기관차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호황을 이어가면서 연준의 내년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시기가 현재 전반적인 컨센서스인 하반기에서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에단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 경제 리서치 헤드는 "지난 5년간의 부진한 성장 이후 미국 경제는 마침내 회복실에서 나왔다"며 "연준은 느리고 완만하게 금융시장을 조이는 정책 변화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17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금리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소니 '인터뷰' 성탄절 제한 개봉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한 개봉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터뷰'는 오는 25일 성탄절에 텍사스주 오스틴의 알라모드래프트하우스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더플라자에서 개봉된다.

마이클 린턴 소니픽처스 공동사장은 '인터뷰' 상영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일부 극장에서 성탄절에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니는 앞서 극장과 관객에 대한 테러 위협을 이유로 '인터뷰' 개봉을 취소했으며, 일부 독립영화관들이 상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인터넷 통신망 4개가 약 1시간 동안 다시 불통 상태에 빠졌다가 복구됐다. 딘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차이나유니콤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인터넷 연결망이 전날 복구된 이후 그리니치표준시(GMT) 오후 3시 41분에 다시 끊겼다. 북한의 인터넷 통신망은 1시간여 만에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알리바바, '짝퉁제품 근절' 박차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이 '짝퉁' 근절에 칼을 뽑아 들었다.

알리바바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약 9000만개 위조품을 찾아내 축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폴로 사오 알리바바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이날 항저우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위조품을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10억 위안(약 1769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지난 11월 11일 중국 솔로데이(광군제) 단 하루동안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만큼 글로벌 온라인쇼핑업체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모조품 논란은 이 같은 알리바바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요소. 이에 알리바바는 그 동안 미국 규제당국의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알리바바 산하 타오바오는 지난해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악명높은 업체' 목록에 있었다.

이에 알리바바는 지난 9월 뉴욕증시에 기업공개(IPO)를 하기 전 '짝퉁제품 청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록스타, 4000개 이상 특허 매각

애플 등이 주요 주주로 있는 특허 컨소시엄 '록스타'가 보유하고 있던 통신 기술 관련 특허 4000개 이상을 9억 달러에 매각한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통신 기술과 둘러싼 글로벌 IT 공룡의 소송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록스타 컨소시엄은 미국 특허 클리어링하우스인 RPX에 4000개 이상의 특허를 9억 달러(약 9911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 컨소시엄이 4년전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에 쓴 돈이 45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5분의 1 어치의 특허를 내다 판 셈이다.

이번 매각으로 업계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 상당 부분이 RPX로 넘어가면서 록스타가 이제까지 제기한 고액의 소송 일부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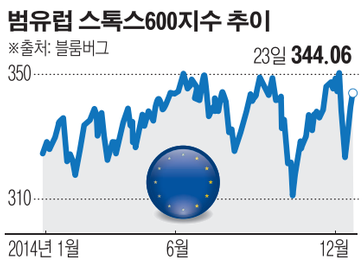
록스타는 애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블랙베리 에릭슨 소니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1년 파산한 노텔네트워크로부터 45억 달러를 들여 6000개의 특허를 사들였으며 이중 4000개는 록스타컨소시엄이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2000개는 각자 나눠 가졌다.

특허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RPX는 이번에 사들인 특허를 구글과 시스코를 비롯한 30개 IT기업 연합체에 허가할 방침이다.

모건스탠리도 JP모건도 골드만도…

"내년 유럽에 투자하라"

ECB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유로화 약세·증시 강세 전망 범유럽스톡스 13% 오를듯



월가 투자기관들은 오는 2015년 유럽 주식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공격적인 경기부양과 유로 약세 그리고 저유가에 힘입어 유럽증시가 내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높은 수익률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2015년 투자전망보고서에서 내년 유럽이 투자자들의 '연인'이 될 것이라며, 유럽 주식과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월가가 예상하는 내년 범유럽 스톡스600지수의 상승률은 평균 13%다. 기관별로 골드만삭스가 내년 스톡스600지수 전망치를 36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7일 종가와 비교하면 11% 높은 것이다.

JP모건은 15%, 소시에테제네랄(SG)은 6% 오를 것으로 봤다. 바클레이스는 가장 낙관적인 21%의 상승폭을 예상했다.

유럽증시에 대한 낙관론은 ECB가 이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내년 초 국채 매입에 나서는 등 미국식 양적완화(QE)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CB는 이미 앞으로 수년에 걸쳐 재무제표를 1조 유로(약 1350조원)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도 기대된다.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도 호재다. 유로화 가치는 올해 달러 대비 10% 급락했으며, ECB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에 따라 내년 5% 이상 추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내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국) 기업의 주당 순이익(EPS)이 2%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내년 전체 순익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는 내년 유로화 가치 하락폭을 10%로 제시했다.

유가 약세 역시 소비자들의 지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업종별로 은행을 비롯해 헬스케어 보험 IT 통신 항공 의료기기 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편, SG 크로스애셋리서치는 내년 아시아 주요 증시의 상승폭이 다른 지역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소시에테제네랄에 따르면 2015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는 27% 상승하고, 한국 코스피는 11% 오를 전망이다. 또 대만 가권지수는 7%,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SG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내년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아이들아 기다려… 내가 간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몽트뢰 크리스마스 마켓 앞 제네바 호수 위를 산타클로스가 불꽃을 내뿜는 썰매를 타고 날아가고 있다. 산타클로스는 호수에 설치된 385m의 케이블을 타고 제네바 호수를 건넜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마을 몽트뢰에서는 매년 겨울이면 스위스 최대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몽트뢰/STF연합뉴스

"'특허 좀도둑' 샤오미, 미래 불투명" 中언론도 쓴소리

최근 인도서 '3G기술' 침해판결 자사 보유 특허권 1489건 불과 ZTE 5만·화웨이 7만건과 대조

창립 4년 만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나의 신화를 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다른 IT기업의 특허를 협의 없이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며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경제망은 경제참고보를 인용해 "'특허 좀도둑' 샤오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샤오미는 국내기업, 세계기업을 막론하고 특허사용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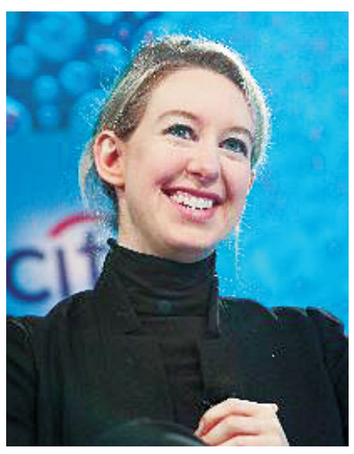
최근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스웨덴 에릭슨의 '3G 기술' 등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며 샤오미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렸다. 이에 샤오미는 내년 2월 5일까지 인도 내 수입과 판매, 광고가 금지됐다. 또 샤오미는 지난달 같은 자국기업인 화웨이와 ZTE로부터 특허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샤오미가 안고 있던 리스크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앞으로 회사는 대규모 특허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샤오미가 해외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와중에 중국언론들이 '좀도둑'이라는 강한 언사를 구사하며 회사를 비판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중국지식산권국(SIPO)의 통계시스템에 검색되는 샤오미의 특허는 1489건에 불과했다. 이는 경쟁사인 ZTE가 지난해 말 기준 5만2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화웨이는 7만1903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2014 글로벌 톱5 CEO ⑤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CEO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CEO

피 한방울로 病진단…메디컬계 '저커버그'

올해 자산 5조원 육박…美서 110위 최대약국 월그린 8700곳 입점 목표

'여자 저커버그'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는 올 한해 가장 '핫'한 관심을 받았다. 이제 갓 30대가 된 어린나이, 금발의 미모, 자수성가란 키워드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를 연상케 하는 그녀의 검은색 터틀넥 니트 패션 스타일까지 홈즈 CEO의 몸짓에 전 세계가 집중했다.

홈즈 CEO는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호에서 자산 45억 달러(약 4조9400억원)로 전체 110위에 올랐다.

그녀가 11년 전 세운 바이오 메디컬 회사인 테라노스가 아직 비상장 상태임에도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1984년 생인 홈즈 CEO는 지난 2003년 테라노스를 설립했다. 혈액검사를 할 때 긴 주사바늘을 사용해야 하는 기존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 이에 홈즈 CEO는 스탠포드 대학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혈액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매진했다. 그 결과 테라노스는 성인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1.29cm 혈액통에 단 한 방울의 혈액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30가지 이상의 질환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테라노스의 간단한 혈액 테스트 기법이 73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진단실험산업에서 10억 달러 가까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테라노스의 간단한 혈액테스트 기술은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아 미국의 최대 약국업체인 월그린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월그린 매장 약 8700개에 테라노스 센터가 입점하는게 그녀의 목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유동근·전인화 부부 유준상·홍은희 부부 인교진·소이현 부부

끌어주고 밀어주고… '부창부수' 스타부부

유동근·전인화

KBS2·MBC주말극 나란히 열연

20~30%대 시청률 안방극장 점령

유준상·홍은희

'진짜사나이' 유준상 내레이션 지원

홈쇼핑 광고모델로 찰떡궁합 자랑

배우 부부는 많지만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브라운관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연예인 부부들의 적극적 활약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결혼 25년차 배우 유동근·전인화 부부는 현재 각각 주말 안방극장을 점령하고 있다. 유동근은 KBS 2TV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차순봉 역으로 출연 중이며, 전인화는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에서 차앵란 역으로 열연하고 있다. 두 사람이 출연하는 드라마는 현재 20~30%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부부가 주말 안방극장을 책임지고 있다.

유동근·전인화 부부를 뒤이어 결혼 11년차 유준상·홍은희 부부도 '군대에서 재발견한 잉꼬부부'라는 애칭을 얻으며 활동하고 있다. 홍은희는 8월 방송된 MBC '진짜 사나이-여군 특집'에 출연해 털털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모습을 보이며 인기를 얻었다. 특히 홍은희가 출연했던 '진짜 사나이-여군특집'의 내레이션을 남편 유준상이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이후 아내 홍은희가 "남편 유준상을 다시 군대에 보내고 싶다"는 발언을 하면서 유준상도 10월 '진짜 사나이'에 출연했다. 유준상·홍은희 부부는 각자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 출연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선보이며 호감 부부로 거듭났다. 두 사람은 인기에 힘입어 부부 동반 홈쇼핑 모델로 발탁돼 광고에서도 잉꼬부부의 모습을 과시했다.

지난 10월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인교진·소이현 부부도 각자의 영역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인교진은 현재 MBN 주말드라마 '전국의 눈물'의 진현웅 역과, SBS 주말드라마 '미녀의 탄생' 교지훈 역으로 주말 안방극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아내 소이현은 현재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과 MBC 에브리원 예능프로그램 '더 모스트 뷰티풀데이즈'의 MC로 활약 중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흥행·시청률로 본 2014 영화·방송

올 한해 안방극장과 극장가는 불꽃 튀는 흥행 대전을 벌였다. 인터넷·IPTV의 활성화로 시청률 부진이 가속화됐지만 시청률은 여전히 '성공'의 지표로 인식돼 과도한 경쟁을 촉발했다. '왔다! 장보리' 등 시청률 확보에 성공한 작품은 숱한 화제를 낳았고, '매직아이' 등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은 프로그램도 있었다. 영화계는 1761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명량'을 필두로 '겨울왕국' '인터스텔라' 등 무려 3편의 1000만 영화를 배출해냈다.

1억 관객

'명량' 1761만 '겨울왕국' 1029만명

충무로·할리우드 나란히 1억 돌파



영화 '명량'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가 나란히 1억 관객을 돌파한 2014년 영화계는 관객 동원력에 더해 다양성 확보라는 값진 결실을 맺은 해였다.

흥행 1위는 1761만명(이하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명량'이었다.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 최민식의 카리스마와 국난 타개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리더십의 주제가 관객에게 대리만족을 주며 흥행의 새 역사를 썼다.

'겨울왕국'은 올 초 1029만명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하며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3위에 오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인터스텔라' 역시 24일 1000만 관객에 임박하며(997만명) 흥행을 주도했다. 두 작품의 외국 영화가 1000만 반열에 오른 것은 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이어 '해적: 바다로 간 산적'과 '수상한 그녀'가 각각 866만명, 865만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12월 개봉한 '변호인'은 올해만 569만명(누적 관객수 1138만)의 관객을 동원하며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할리우드 영화는 2013년 '아이언맨3' 단 한 작품만 TOP10에 진입했지만 올해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엣지 오브 투모로우'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등 6개 작품이 톱10에 진입해 반등에 성공했다. 최두선 기자 sun@

드라마 왕국

왕가네 식구들 42.1%로 1위

별그대·기황후 20%대 '훌쩍'



KBS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

올 한해 시청자에게 큰 사랑을 받은 TV 프로그램은 단연 드라마다. 드라마 중에서도 주말드라마와 일일드라마가 독보적 인기를 누리며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1위는 KBS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이다. 해당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42.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이하 동일, 1월4일~2월16일)을 기록하며 주말극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2위는 30.8%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한 '사랑은 노래를 타고'(1월1일~6월6일)가 차지했다, 그 뒤를 '가족끼리 왜이래'(28.6%, 8월16일~12월21일),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25.3%, 1월1일~2월27일),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 (24.7%, 1월6일~4월29일), KBS 주말드라마 '참 좋은 시절'(24.5%, 2월22일~8월10일) 등이 이었다. 특히 평균 10%를 기록하며 좀처럼 저조한 시청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미니시리즈의 경우 '별에서 온 그대'와 '기황후' 단 두 작품만 20%대 시청률을 돌파하며 10위권에 들었다.

한편, 국민악녀 이유리의 활약이 돋보인 MBC 주말극 '왔다 장보리'는 평균 시청률 20.8%(4월5일~10월12일)로 9위를 기록했고,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MBC 주말극 '전설의 마녀'는 매회 꾸준히 시청률 상승을 이끌며 평균 시청률 20%(10월25일~12월21일)를 기록,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정 기자 mj_kim@

떴다, tvN

삼시세끼… 미생… 꽃청춘…

예능부터 드라마까지 대박행진



tvN '삼시세끼'

올 한해 지상파를 위협하는 활약을 펼친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은 tvN이 선봉에 섰다.

나영석 PD표 예능의 저력을 입증한 tvN '삼시세끼'의 12일 방송분은 평균 시청률 9.1%(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유료 플랫폼 기준, 이하 동일)까지 치솟으며 2014년 케이블, 종편 통틀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으로 우뚝 섰다. 예능과 함께 드라마 '미생'이 tvN의 시청률을 견인했다. 평균 시청률 8.4%를 기록하며 지난 20일 막을 내린 '미생'은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찬사를 얻었다.

뒤이어 전 세대를 아우른 케이블, 종편 프로그램이 줄줄이 시청률 5%대를 웃돈다. 유연석, 바로, 손호준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꽃보다 시리즈'의 완결판인 '꽃청춘-라오스 편' 2회는 5.8%, MBN '황금알'5.7%, '아궁이' 5%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김희애, 유아인이 파격적 멜로 호흡을 맞추며 완성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한 JTBC 드라마 '밀회'는 5.3%의 시청률로 상반기 비지상파의 대표 화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4%대의 선전을 펼친 엠넷 '슈퍼스타K6', JTBC '비정상회담' 등이 화제와 시청률을 동시에 잡았다. JTBC '님과 함께', '썰전'이 높은 시청률이 뒤를 이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삼성 사장단, 갑오년 마무리는 '인문학'

마지막 강의로 한형조 교수 '유교, 잊힌 삶의 기술'
인간 본질 탐구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법 소개
글로벌 위기에 47회 중 22회 경영분야 집중 공부

삼성 사장단이 24일 인문학의 가치를 되새기며 올해 수요 강연을 마무리했다.

삼성 사장단은 매주 경영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40분 가량의 강연을 듣는다. 사장단 회의는 고(故) 이병철 창업주 시절부터 있었지만 2000년부터 현재의 방식으로 정례화됐다.

삼성 계열사 사장이라고 해서 모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 사장단은 부회장(5명)을 포함해 총 61명이지만, 오너 일가 부회장·사장 3명과 미래전략실 부회장·사장 3명을 제외한 계열사 사장단은 55명이다. 이 중에서도 주력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30여명 정도만 참석이 가능하다.

삼성 사장단은 이날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유교, 잊힌 삶의 기술'이란 주제 강연을 들었다. 저서 '붓다의 치명적 농담'으로 잘 알려진 한 교수는 이날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나 자신'을 제대로 다뤄 인격을 함양하고,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사장단은 이날을 끝으로 올해 총 47회의 강연을 들었다. 특히 삼성 사장단은 리더십 등 경영 분야에 대해 외부의 지혜를 구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올해 경영 분야 강연은 22회로, 지난해 총 45회 강연 중 경영 분야가 13회였던 점을 고려하면 부쩍 늘었다.

이는 삼성을 둘러싼 안팎의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 사장단은 지난 17일 강연에서 윤호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기후변화연구부장(박사)의 '극한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청취했다. 윤 박사는 세월호와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예로 들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위기를 맞이할 때 리더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근거없는 낙관주의 대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 사장단은 5월까지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올 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던진 '마하경영'의 화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3월엔 네 번의 수요일 모두 경제 분야를 배웠다. 하반기 들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강연이 많아졌다.

정치, 문화 분야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정세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 전망에 대해 임혜란 서울대 교수로부터 들었다. 지난달 19일에는 박칼린 뮤지컬 감독으로부터 '하모니 리더십'에 대해서 들었다.

한편, 올해 수요 사장단 강연 주제는 경제(경영 포함) 분야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문화 7회, 정치 5회, 사회 2회 등으로 집계됐다. 장효진 기자 js62@

2014년 수요 삼성 사장단 주요 강연 내용

날짜	주제	강사	소속
1월 8일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	전재성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2월 12일	다시 전략이다	장세진 교수	카이스트
3월 12일	한국경제의 진로	박병원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4월 23일	혁신을 디자인 하라	에린 조 교수	파슨스디자인 스쿨
5월 28일	그룹 IT 체계 혁신 방안	전동수 사장	삼성SDS
6월 18일	인구고령화와 한국경제	이철희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7월 16일	사물인터넷 시대의 넥스트 10년을 준비하라	최재붕 교수	성균관대 기계공학
8월 13일	교황의 공감 리더십	차동엽 신부	
9월 3일	세종대왕 리더십	박현모 소장	세종리더십연구소
10월 15일	작가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현실과 기업의 역할	이문열 소설가	
11월 19일	하모니 리더십	박칼린 뮤지컬 감독	
12월 17일	극한의 위기관리 리더십	윤호일 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2월 24일	유교, 잊혀진 삶의 기술	한형조 교수(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순태 녹십자 대표(왼쪽)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녹십자

녹십자, 대한적십자사에 이웃돕기 성금 1억 기탁

녹십자는 대한적십자사의 '2014 희망풍차 시리어스 리퀘스트(Serious Request)' 사업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풍차 시리어스 리퀘스트는 연말을 맞아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 실질적인 맞춤형 나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기획·주관하는 인도주의 사업이다.

기탁된 성금은 녹십자 임직원들이 급여 1% 나눔 및 끝전 모으기, 바자회 등을 통해 조성했다. 독거노인·조손가정어린이·다문화가정·북한이주민 등 희망풍차 지원대상 중에서 주거·교육·의료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 쓰일 예정이다.

녹십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 회원유공장 중 가장 높은 최고 명예대장을 수상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이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25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하나금융, 성금 25억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25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하나은행이 사회복지 및 육영 등 공익 기여를 목적으로 모집한 공익신탁 기금 8억1000만원에 하나금융, 하나은행, 외환은행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말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한 16억9000만원의 성금을 더했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조계종 前 종정 '절구통 수좌' 법전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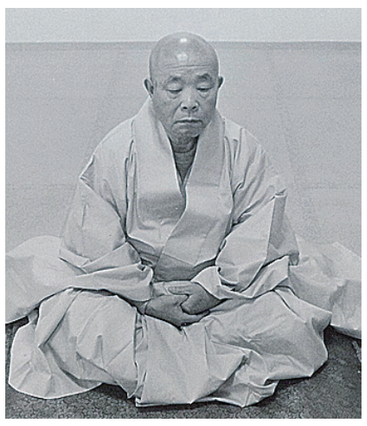
성철스님 받들며 한국 불교 정신 되살려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법전(法傳) 스님이 23일 입적했다. 세수 90세, 법랍 73세. 스님 법구는 해인사로 이송했다고 도림사 측은 밝혔다.

법전 스님은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익혔고 14세 때 전남 장성 백양사 청류암으로 출가했다. 17세 때 영광 불갑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성철스님을 받들며 수행했다.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정진하면서 파계사(동화사 말사) 성전암의 스승 성철스님에게서 인가를 받았다.

법전 스님의 별호는 '절구통 수좌'였다. 한 번 참선에 들어가면 구들장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스님은 조계종 종정과 해인사 방장을 지낸 성철(1912~1993), 혜암 스님(1920~2001)의 뒤를 잇는 대표적 선승(禪僧)이었다. 왜색불교로 피폐해진 한국 불교의 정신을 되살린 봉암사 결사(1947~1950년)에 참여한 마지막 수행자의 한 명이기도 했다.



법전 스님은 종단이 어렵던 1981년 중앙종회의장, 1982년 총무원장을 잠시 맡았지만 평생 참선하는 수행자로 살아왔다. 1996년 해인사 방장으로 추대된 스님은 2002년 혜암 스님이 입적하자 조계종 11대 종정에 추대됐다.

또 2009년 자서전 '누구없는가'를 출간해 스님의 진솔한 삶과 수행 흔적을 세인들에게 보여줬다. 법전스님은 임종게(臨終偈)로 '산빛과 물소리가 그대로 실상을 펼친 것인데 부질없이 사방으로 서래의를 구하려 하는구나(중략)'라고 남겼다.

분향소는 해인사 보경당과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다. 법전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은 27일 오전 11시 해인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된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송성각〈사진〉 전 제일기획 상무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송 신임 원장은 국민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이후 1982년부터 2006년부터 제일기획에 재직, 제작본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 도너츠미디어(스톰이앤에프)와 영상 제작업체 머큐리포스트의 대표이사도 지냈다.

송 원장은 "콘텐츠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한국의 콘텐츠산업이 세계 시장의 메이저가 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9년 국내 콘텐츠산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6월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파견 △국민대통합위원회 김남균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소성환

◆**국가보훈처** ◇승진 △부이사관 장재욱 △서기관 안주생 김문재 김이주 정병천 양홍준 안진형

◆**중소기업청** ◇서기관 전보 △중소기업정책국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국 이형철 △소상공인정책국 김광재 △중견기업정책국 김주화 △경영판로국 신성식 △강원지방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이구익 ◇서기관 승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파견 박승록 △운영지원과 유동준 △소상공인정책국 하인성 △창업벤처국 윤세명 △경기지방중기청 공공판로지원과장 직무대리 심대용 △대전충남지방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장 최종영

◆**특허청** ◇과장급 전보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장 박주연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과장 김지맹 △특허심판원 심판관 안희철

◆**언론중재위원회** ◇승진 (2급) △기사심의팀장 이수종 △연구팀장 김주용 (3급) △접수상담팀 차장 오윤미 △예산회계팀 차장 윤치경 △조사팀 차장 이홍길 ◇전보 △접수상담팀장 구율화 △교육운영팀장 여운규 △교육콘텐츠팀장 양재규 △기획팀장 조준원 △부산사무소장 이미경 △광주사무소장 안백수 △대전사무소장 황정근 △감사실장 정희성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의료원장 이승규 △서울아산병원장 박성욱 △아산재단 사무총장 김인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 다이나믹스 총괄 상무이사 유영석

◆**MBC강원영동** △경영기획국장 권혁황 △광고사업국장 장대익 △방송제작국장 신종엽 △보도국장 최재석 △총무부장 이기훈 △기획심의부장 최규방 △광고부장 이연선 △사업부장 안교성 △편성 제작1부장 박태삼 △편성 제작2부장 홍성우 △기술1부장 정의강 △기술2부장 장종성 △보도1부장 문병훈 △보도2부장 이형진 △영상취재부장 박영만 △보도기획담당 박봉교

마약금지 홍보대사 청룽 아들은 마약혐의로 기소

팡쭈밍, 2년 이상 실형 전망



마약 흡입 등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던 유명 영화배우 청룽(성룡)의 아들 팡쭈밍(방조명)이 22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청룽은 2009년부터 중국 정부의 마약금지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공식 웨이보에서 "베이징 둥청구 검찰이 팡쭈밍을 마약 흡입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할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최고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8일 베이징 공안은 시민의 제보를 받고 팡쭈밍의 자택에서 파티를 벌이던 대만 청춘스타 커전둥(가진동) 등 3명을 적발했다. 공안은 팡쭈밍의 자택에서 100g 이상의 마리화나를 발견했고, 둥청구 검찰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팡쭈밍을 9월 17일 정식 체포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팡쭈밍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인 까닭에 집행유예와 보석의 기회도 없을 것이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팡쭈밍과 함께 체포됐던 커전둥은 14일간의 구류 후 석방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인혁당 사건' 진실 알린 진필세 신부 선종



국내 민주화를 위해 인혁당 사건 구명운동을 펼쳤던 메리놀 외방 선교회의의 진필세 야고보(제임스 시노트) 신부가 지난 23일 오전 0시 30분 선종했다. 향년 85세.

진 신부는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 때문에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고초를 겪으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1929년에 태어난 진 신부는 1960년 메리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품을 받았다. 그해 한국에 입국해 인천 지역에서 사목활동을 벌였다.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구명 활동을 벌이다 강제 추방당했다.

1989년 한국을 재방문했고, 2002년부터 제2고향과 같은 한국에서 체류해 왔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25일 오후 3시 입관식이 열린다. 또 장례미사는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거행된다. 02-466-1238 박태진 기자 tjpippo@

인문학자 남경태씨 별세



인문서 '종횡무진 역사'의 저자인 인문학자 남경태씨가 23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3세.

1961년 서울에서 출생한 그는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80년대 사회과학 출판사인 백산서당에서 편집장을, 도서출판 새길에서 기획위원을 맡았다. 그는 1980년대 편집자로 출판계에 입문했다.

94년 '셜록 홈즈의 추리학'을 첫 작품으로 20년 동안 저작 39권과 번역서 106권을 세상에 내놨다. 유작인 '종횡무진 동양사'는 내년 2월 출간될 예정이다.

방송활동을 통해 대중들과의 만남도 활발히 가졌다. 2007년부터 MBC 라디오에서 '타박타박 세계사'를 진행했고 2013년부터는 1년간 팟캐스트 방송인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성광일씨와 아들 한결씨가 있다. 빈소는 일산백병원 6호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5일 오전 9시다. 구성헌 기자 carlove@

英 '록&블루스 전설' 조 카커 잠들다



영국 록&블루스 가수인 조 카커가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22일(현지시간) 그의 에이전시가 밝혔다.

카커는 특유의 거친 음색으로 유명했다. 그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You Are So Beautiful)'를 비롯해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영화 '사관과 신사'의 OST '저 높은 곳을 향하여(Up Where We Belong)' 등으로 한국 팝송 팬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가수 제니퍼 원스와 함께 부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1983년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부음

▲**추왕훈**(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장)·**부식**(부산시 남구청)씨 부친상, **전병호**(사업)씨 장인상 = 23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10-8564-6923

▲**정지석**(전 한미약품 부회장)·**유석**(재미 정신과의사)·**이석**(건축가)·**현애**씨 모친상, **박응범**(이대목동병원 외과교수)씨 장모상 = 23일 오후 1시 11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010-8727-9966

▲**노재덕**(전 경향신문 사진기자)씨 장인상, **최낙상**(동우주택대표)·**락빈**(티에스 렉스타일 대표) 부친상 = 22일 오후 21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93

▲**이승원**(연합뉴스 총무부 차장)씨 조모상 = 23일 오전 9시 30분, 경북 안동시 금곡동 안동성소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5일 오전, 054-850-8501

▲**황경옥**씨 남편상, **박동욱**(삼립전기 차장)·**동미**(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씨 부친상, **이소희**씨 시부상 = 23일 오후 2시 36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2-2225-1444

▲**황의장**(대전교도소 보안과)·**의영**(대전제일고 교사)씨 부친상 = 23일 오전 11시, 대전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42-471-1653

▲**유상봉**(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씨 모친상 = 23일, 부산 백병원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02-2182-0710

▲**채훈**(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씨 장모상, **조선옥**(인천 길주초교 교장)씨 모친상 = 23일,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30분, 032-580-6662

▲**장정호**(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향우산업 대표이사, 예비역 육군 소장)·**송영순**씨 아들상, **정윤섭**(연합뉴스 기자)씨 처남상 = 15일 오후 11시 미국 메릴랜드주 현지시간, 25일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장지 용인천주교공원묘지, 053-620-4647

국회 경제포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헛다리 짚은 정부 경제정책방향



지난 22일 정부가 당정협의와 청와대 경제정책토론회를 통해 2015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내년 우리 경제는 3.8% 성장을 이루고 물가는 2% 인상될 전망이라고 한다.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성장률 전망치인데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걱정하던 올해 정부의 태도와 비교하더라도 다소 낙관적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 자료 어디에도 이러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할 만한 설명은 없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경제는 조금 나아질 전망이지만, 유럽과 중국, 일본은 여전히 어둡고 러시아는 불안하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 정도가 다인 것 같다.

어떻든 정부는 이 같은 희망 섞인 전망을 근거로 '구조개혁'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화두로 내놓았다.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부문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정작 경제구조개혁에 있어야 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신산업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규제개혁'에 가깝다는 게 솔직한 느낌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요인은 가계와 내수인데, 아직도 정부는 기업과 수출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규제혁파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나름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정작 가계가처분소득을 늘려서 부채를 건전화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부의 정책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당장 내년 초 당도할 연말정산 시즌부터 작년에 비해 가계소득이 9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결과 중산층에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것이다.

내년부터 오르게 될 담뱃값만으로도 2조5000억원의 세금이 중산층과 서민을 가리지 않고 투하된다고 하지 않는가.

내년 봄 이사철에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전월셋값이 대란을 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내놓는 대책은 없이 기다려 보란 말뿐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책의 효과라는 것도 고작 1조원 정도에 불과할 전망이고, 이마저 과장되었다는 평가라 큰비에 봇물 터지는데 호미 들고 설치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

내년 1월부터 중산층과 서민에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2~3월에는 전월세 대란이 가계를 공습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5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인상 폭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부는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낙관적 전망과 희망 섞인 수치에 자기도취돼 헛다리 짚는 정책이나 만지고 있을지 의문이다.

비록 이번 정부정책방향에선 빠졌더라도 정부는 새해가 밝자마자 가계와 내수 위기를 해결할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늦기 전에 가계소득을 늘리고 내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당장 가계소득을 늘리기 어려우면 가계지출을 줄이는 획기적 방안으로 고강도의 종합적 전월세대책이라도 내놔야 할 것이다.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던 경제부총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철의 아하!



논설실장

지록위마(指鹿爲馬), 그 열 가지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 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국민 고사성어가 됐다. 교수들이 꼽은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된 직후 주요 포털의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십상시(十常侍)라는 말까지 유행한 올해를 돌이켜 볼 때 시의적절한 촌철살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갑오년 한해 동안 권력을 이용해 참을 거짓이라 우기는 불의가 창궐하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이 많다는 뜻일 터다.

구체적인 지록위마의 사례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감은 온다. 하지만 누리꾼이 더 민첩하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지록위마 시리즈까지 돌고 있다. 시시비비는 있겠지만, 대체적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1.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원세훈 관결

2. 56조원 빚 남겼지만, 실패한 자원외교 아니다 - 최경환 부총리

3.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 돌리라고는 안 했다- '땅콩'항공

4.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KBS에 언론보도 협조요청은 했지만, 언론통제는 아니다 - 청와대

5.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6.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 위해서다 - 최경환 부총리

7. 공문서 위조는 했지만, 간첩조작은 아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검사

8.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 문건을 맞지만, '찌라시'다 - 청와대

9. 전시작전권 (반환)은 연기했지만, 군사주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 국방부 장관

10. 원전은 해킹당했지만, 원전은 안전하다 - 한수원"

편파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청와대와 정부 등 여권의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말인 견강부회(牽强附會·갖다 붙이기)나 아전인수(我田引水·내 논에 물 대기)와 달리 지록위마는 약자를 겁박하는 권력형 고사인 만큼 '슈퍼갑'에 질타가 쏠리기 마련이다. 한 술 더떠 새정치민주연합은 땅콩회항을 빼고 대신 통일진보당 해산을 집어넣는 등 지록위마 시리즈 변형안을 자체안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갑인 야권이 자유롭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나 안 때렸어요"라는 변명이나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해 반전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다"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후 진술도 지록위마처럼 본말이 전도돼 큰 공분을 샀다. "나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이라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라면' 사과도 진실을 호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권만 물든 것은 아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거친 폭언을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다른 곳을 가리켰던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나 북한을 지상 천국인 양 선전하는 두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평양 방문기에 이르기까지 시도 때도 없이 곳곳에서 넘쳐났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미생'에겐 이마저 사치일지도 모른다. 일상이 돼 버린 지록위마식 횡포에도 견뎌야 하기에 분루를 삼킨 채 엎드려 숨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신문은 연초에 희망의 화두를 제시하고, 연말에 세태를 콕 집어 풍자한다. 올초 사자성어는 전미개오(轉迷開悟)였다.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른다는 전미개오가 거짓이 판치는 지록위마로 쪼그라든 것이다. 지난해도 그랬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내놓은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새해 메시지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도행역시(倒行逆施)로 추락했다.

2015년 새해는 어떨까. 글쎄다. 각자 편한 방향으로 해석할 뿐 자성의 목소리조차 없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정부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록위마를 언급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은 야권이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지록위마 행태를 보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진영 논리가 지록위마의 교훈마저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내일은 성탄절이다. 이대로라면 산타클로스의 루돌프 사슴마저 말이 될 지경이다. 을미년에는 어떤 사자성어가 새해 메시지가 될지 궁금하다. 설마라고 지록위마에 1위 자리를 내준 삭족적리(削足適履·발을 깎아 신발에 맞춤)란 섬뜩한 말이 득세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banta102@

온라인 와글와글

떨어지는 휘발유 값…"공공요금도 내리자"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서울시내에 휘발유 1400원대 주유소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하다. 네티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내려가도 이 상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기름값 900원 될 날 머지 않았네요", "미국은 세금 합쳐서 ℓ당 600원인데 우린 너무 한 거 아닌가?", "우리 동네 주유소는 2000원 넘는데?", "국제유가는 반토막인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이게 뭐냐? 간보냐?", "인간적으로 유가 내렸으면 공공요금 외 물가 좀 내리자 !", "뉴스에서는 계속 내린다는데 주유소는 내리다가 멈췄다", "올겨울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분들한테 희소식이네. 공공요금도 이참에 내렸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강원도 춘천 일대에 조성 중인 레고랜드 내 청동기 유적 보전 여부를 두고 네티즌이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찬성론자들은 "개발론자들은 이미 농사짓느라 파괴됐다는데 우엉 뿌리는 30~60㎝ 정도다. 문화재 파괴 주범은 공사 때문이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전해야 한다", "레고랜드는 없으면 그뿐이지만, 문화재는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는 거야. 복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남대문을 통해 아직도 배운 게 없냐?"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난 몇 십년 동안 유적 발굴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레고로 선사시대 유적지 만들고 근처에다 박물관 짓는 것으로 마무리 좀 하죠. 이제 와서 레고랜드에 책임 떠넘기나요?",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 봤자 2000년 전 유적일 뿐. 세계 역사에선 큰 의미 없다" 등 반론을 제기했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인하대 교수들 "조현아·조원태 이사회 퇴출" 요구
2. 파워레인저 티라노킹, 대형마트 9000개 순식간에 '또 완판'
3. 제2롯데월드 황당사고, 지하주차장에 버스 끼어 '우지직'
4. 유영철, 성인물 불법 반입 이어 '멱살 난동'까지
5. 현대 계동사옥 화재로 300명 대피 소동

오늘의 BAE 배국남닷컴 www.baekn.com

서울서 팬미팅·사인회 연 손흥민



배국남닷컴은 23일 축구스타 손흥민(22)을 만났다. 손흥민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올해 성원을 보내준 팬들을 위해 팬미팅과 사인회를 가졌다. 손흥민은 이날 연말연시 분위기에 맞춰 팬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활짝 열었다. 아디다스 역대 히스토리볼 세트, 브라주카 공인구, 레버쿠젠 유니폼 등에 자신이 직접 사인 후 팬들에게 전달했다. 축구팬과 온라인 축구게임을 함께 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2014년은 롤러코스터 같은 해였다. 브라질월드컵에서는 한국 축구의 16강 탈락에 눈물을 흘렸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소속팀 레버쿠젠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려놓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날 손흥민은 다음달 열리는 아시안컵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손흥민은 "냉정하게 우리가 아시아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봐도 그렇고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죽기살기로 뛰지 않는다면 아시아 최강 타이틀을 지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첫 경기가 첫 단추이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손흥민은 자신의 원톱 기용설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운을 뗀 뒤 "경기장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어느 포지션이라도 해야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대표팀에 잘하는 원톱 공격수도 많고 주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체력을 지켜 주는 보양식도 공개했다. 손흥민은 "나는 점심, 저녁을 고기 먹는 사람이다. 그중 특히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쉴 틈 없는 일정 때문에 조금은 지쳐 있다는 손흥민은 "그래도 대한민국 팬들이 아시안컵을 기다리고 있는데 뭔들 못하겠냐"라며 웃었다. 최성근 기자 sgchoi@



데스크 칼럼

구호만 넘치는 게임진흥계획



선 년 규
온라인국장 겸 미래산업부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8일 게임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게임 생태계 확립과 문화 활동으로서의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2019년엔 세계적인 게임사 20곳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언론 보도용 제목으로 사용하기 좋게 5년간 23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앞머리에 내세웠다. 요즘 같은 시국에 큰 관심거리는 아니어도, 게임이라는 작지않은 산업의 중장기 계획이니, 언론마다 그 내용을 고스란히 게재한 것은 물론이다.

원래 게임 진흥 중장기 계획은 2003년부터 있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문체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에 2003년 5개년 계획안이 처음 발표됐다. 2차인 2008년에는 '2012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유인촌 당시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예정대로라면 그로부터 5년 후인 지난해 3차 중장기 계획이 발표됐어야 했다. 법률이 정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해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아무런 소리 없이 지나더니, 올해만은 넘기지 않으려 했는지 2015년을 10여일 앞두고 부랴부랴 계획안을 내놓았다.

법률이 강제로 정한 내용을 문체부 담당자나 게임 관련 산업협회가 모를 리 없다. 담당 공무원이나, 게임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역시 아무런 소리 없이 지나가다니, 직무유기다. 정부 담당자나 이익단체의 무관심에서 게임산업의 미래가 엿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게임을 '규제' 일변도의 경직된 사고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 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선 그런 정부에 기대를 걸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와 업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에 미래가 없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부가 이번에 발표한 3차 중장기 계획은 다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 차세대 게임산업 신영역 창출, 재도약 기반 마련,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 등 3대 전략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다.

6년 전인 2008년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2차 중장기 계획안도 당시엔 환상의 문구들로 넘쳐났다. 당시에도 보도 제목에 사용하라고 '5년간 3500억원 거액 투자' 문구가 들어가 있다. 더불어 차세대 게임제작 기반 조성, 세계 e스포츠 선도, 융합환경 제도 및 정책 체계화 등 프레젠테이션용 용어로 치장한 7대 과제를 내놓았다.

유 당시 장관이 2차 계획안을 발표했을 때 2003년의 1차 계획안의 결과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었다. 이번 역시 2차 계획안이 제대로 실현됐는지, 얼마만큼 성과를 봤는지에 대한 기사나 논평은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3대 게임 강국',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을 독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게임과 ICT 전문지들이 그렇게 많고, 게임 전문가들이 넘쳐나는데, 아예 관심들이 없는 모양이다. 하긴, 게임부문을 국가 산업의 한 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업 대상의 창구로만 여기고 있으니, 정부 정책이 제대로 흘러가는지에 관심 두는 것은 괜한 시간 낭비겠지. 그동안 잘 나가던 게임 선도업체들도 거시(macro)가 아닌 미시(micro)에만 촉각을 곤두세워 아이템 판매로 '코묻은 돈'을 거둬들이는 데만 열을 올려온 게 현실이다. 기업이 돈 버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지만, 게임업체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최근에야 소외 이웃을 돕고, 후배 양성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올바른 게임 인식과 건전한 문화를 심는데는 너무 얄팍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현재와 같은 게임정책, 게임업체들의 자세로는 한국의 게임산업은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차 중장기 계획안의 진솔한 검토도 없고, 6년 전 안을 그대로 모방한 3차 계획안이 '발표용'에만 그친다면, 5년 후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목숨 부지가 어려울지 모른다. 중국 자본의 침투를 걱정만 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게임 1세대들이 취미에만 탐닉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후배들과 함께 거시의 게임산업 방향 모색에 몰두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ngsun@

객석

SW 교육, 이렇게 준비하자



양 훈 석
코스콤
시장업무부 차장

"아빠, 동영상 만드는 법 언제 가르쳐 줄 거예요?"

저녁 숟가락을 놓자마자 둘째 녀석이 성화다. 며칠 전 서점에서 사준 파워포인트 책에서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포함된 동영상 삽입 과정이 흥미를 끌었던 모양이다.

내년부터 중·고생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한다. 필자는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잠재적 프로그래머를 양성, 디지털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SW 의무교육이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동력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미래를 위한 현실은 어떠한가.

첫째, SW 전담 교육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직업인으로서의 개발자들은 많지만 교육까지 가능한 사람은 별로 없다. 우선 나부터도 프로그래머로 20여 년을 살았지만, 아이들에게 수준별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른다.

둘째, 제반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 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에 설치된 PC 한 대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4.8명, 중학교 5.5명, 고등학교 4명이다. PC 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노후화되어 정상 작동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수업은 힘들어 보인다.

셋째, SW교육의 목적을 코딩 능력에 두어선 안 된다. SW교육의 핵심은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키우는 창의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세계인들이 국산 O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날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필자는 정부의 SW교육 의무화라는 큰 프로젝트가 철저한 준비 속에 닻을 올리길 바란다. 아차! 남 얘기 할 상황이 아니구나.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내일은 기필코 아들에게 동영상 삽입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기자수첩

신동빈 회장의 '노코멘트'



이 선 애
산업부/Lsa@

서울 잠실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 지난 10월 저층부 3개동이 개장하며 위용을 드러낸 제2롯데월드는 아직까지도 끊임없는 안전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개월간 금속 구조물 낙하, 바닥 및 천장 균열, 아쿠아리움(수족관) 누수, 롯데시네마 스크린 진동, 인부 추락사 등의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롯데 측은 바닥 균열 논란에 '디자인'으로, 아쿠아리움 누수에는 '수족관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 스크린 진동에는 '음향 파동'일 뿐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사건을 더 키웠다. 롯데가 바닥 균열을 시멘트로 덮는 보수를 진행하면서 당시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냐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또 아쿠아리움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7일 서울시 현장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인부 추락사 사건 당시에는 롯데가 관할 소방서에 따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 기자가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서밋' 행사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제2롯데월드의 아쿠아리움 누수 사고와 관련해 내부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할 말이 없다. 노 코멘트다'였다.

각종 사건·사고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롯데그룹을 감싸안은 집단적 안전 불감증은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민정욱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건설공학교육과 겸임부교수는 "제2롯데월드에는 지금 불길한 징조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 이러한 전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은 하인리히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대재앙에 대한 예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들은 최근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단 및 보완'을 약속했다. 철저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윤철규의 적시타

이케아, 순기능도 있다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가 드디어 한국서 문을 열었다. 온라인마다 넘쳐나는 방문 후기를 들여다보면 다들 엄청난 크기에 놀라고,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하고, 각양각색의 셀 수 없이 많은 가구와 생활용품 등에 다들 매료된 듯하다. 주차장과 화장실, 레스토랑에서의 긴 기다림과 사투(死鬪)를 벌인 것을 빼면 대부분 만족감을 넘어 '신세계'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전 개장을 포함해 16~18일 3일 동안 이케아를 다녀간 사람은 5만여명에 육박했다. 이 중 5분의 1이 커피와 핫도그를 각각 마시고 먹었으며, 대부분이 '미트볼'로 허기를 채우며 4~5시간의 가구 쇼핑을 이어갔다. 가구 쇼핑과 먹거리, 놀이와 데이트가 한꺼번에 가능한 공간을 목격한 이들은 '이방인'의 성공 가능성에 토를 달지 않는 듯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오픈 효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룡의 진짜 경쟁력에 대해 소비자들이 눈치를 차린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온라인 후기마다 이케아의 제품에서 가구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 국내 가구단지에서 새 가구를 살 때 풍겼던 역한 냄새가 없었다면서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E0', 'E1' 등 환경 기준을 언급하면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까지 보인다.

그동안 일부 가구업체들은 '가구냄새'가 난다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냄새는 대부분 PB나 MDF 같은 집성목(원목 톱밥 또는 폐목재 톱밥)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때문이다. 집성목은 톱밥을 본드와 버무려서 고온·고압으로 쪄내는데 이 본드가 포름알데히드 범벅이다.

선진국은 이런 유해가구를 쓰지 못하게 한다. 이케아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E0와 E1 등급만 생산하고 있다. 'E0(Emission Zero)'는 유해물질 배출이 제로란 뜻이지만 실제로는 1ℓ당 0.3~0.5㎎이 나온다. E1은 1ℓ당 0.5~1.5㎎의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일본은 E0보다 높은 슈퍼E0(SE0)를 쓰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고, 유럽과 미국도 E0 이상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명 브랜드만이 겨우 E0와 E1을 사용할 뿐 영세업체들은 E2 재료로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국내 가구산업에서 영세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따지고 보면 이케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그대로 허용한 건 결국 정부와 업계가 자초한 면이 크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건강'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키워드가 됐다. 공룡이니 공습이니 언론과 업계가 이케아 진출의 파장을 자극적으로 표현해 왔지만,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이케아와 국내가구의 공공연한 비밀을 눈치챘다면 전세는 점점 더 이케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케아는 한국에서 1호점밖에 내지 않았다. 좋은 재료와 디자인, 값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리턴'시킬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 그동안 가구에 대한 정부 규제의 허술함과 업계의 반성을 이끌어낸 이케아 진출의 순기능을 이해했다면 말이다.

산업부 차장 yoonck@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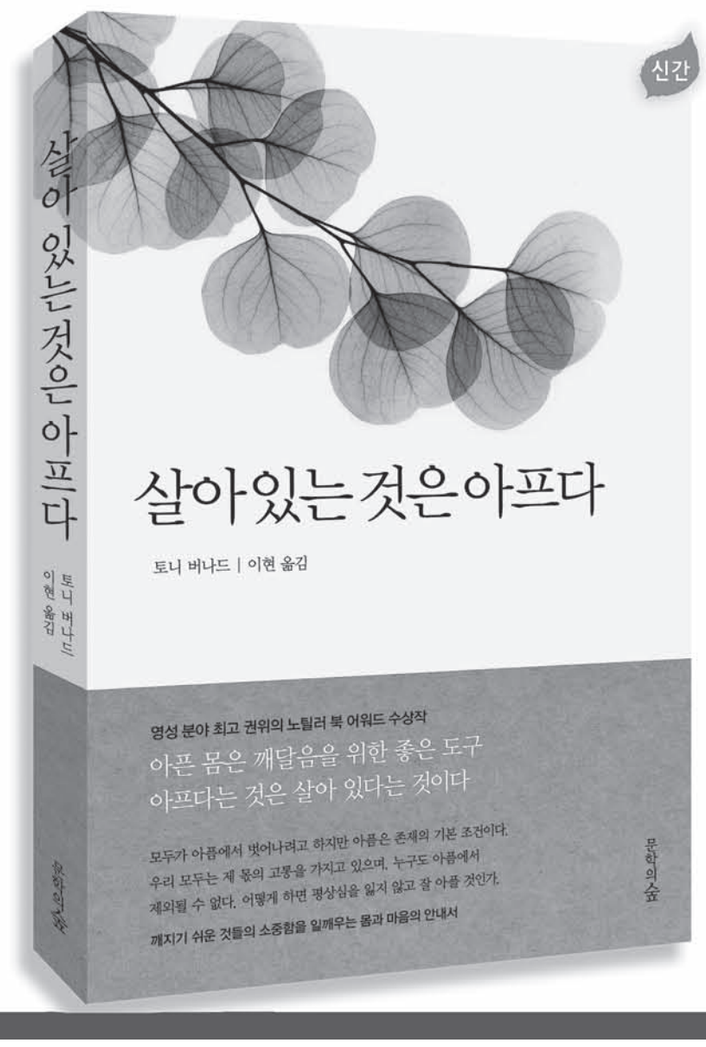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문학의숲 당신을 닮은 좋은책 TEL 02)325-5676



NEW PRODUCT

JANDIRO GOLF

잔디로 온라인 쇼핑몰 백세로닷컴 오픈!

오픈기념 1+1이벤트!

잔디로의 30년전통 장인정신과 세계 1위 명품 천연가죽 피타드사의
최고급 천연가죽이 만나 명품 벨트가 탄생했습니다.

1년간 무상 A/S 및 품질보장!

영국수입 피타드 천연가죽
100% 국내생산

2014 NEW · WATERPROOF LEATHER · HIT

품질이 다른 명품가죽 골프벨트 2세트!

소비지가격: ~~88,000원~~ → 판매가격: **48,000**원

화이트 / 엘로우 그레이 / D.그린 L.브라운 / D.브라운

2014 NEW · WATERPROOF LEATHER · HIT

2014 잔디로 천연가죽 캐주얼화 + 골프벨트!

늘 가까이, 언제나 편안하게!

최고급 소재와 고급스런 장식을 사용한
로퍼 스타일의 천연가죽 캐주얼화!

- 품 번: LM 2012
- 색 상: 진밤색, 검정색
- 굽높이 25mm



● **천연가죽 캐주얼화:** 가격: ~~₩175,000원~~ → 할인가격: **₩98,000**원

● **캐주얼화 + 가죽벨트 세트:** 가격: ~~₩219,000원~~ → 할인가격: **₩110,000**원

www.jandiro.com | www.baeksero.com | 대리점 및 취급점 문의: 02)2690-9002

제품문의: 02)6909-8834 서울역점: 02)6959-4900 목동점: 02)2608-7400 분당점: 031)715-9933 인덕원점: 031)422-8688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오세임 OCBC은행 서울지점 본부장 ▌20면

정보유출·KB사태 넘어 핀테크·기술금융 시대로

Cover Story 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올해 국내 금융권은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를 보냈다. 연초 카드3사 정보유출 사고로 뜨겁게 달궈졌던 금융계는 하반기 KB금융 내분 사태로 회장과 행장이 동반 사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은 금융사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다시 도약을 준비 중인 금융계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만 했다.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배제 방침에 따라 관료 출신들이 금융업계를 떠나고 있지만 '서금회(서강금융인회)' 출신 인물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새로운 관치금융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건·사고로 뜨겁게 달아 올랐던 금융권에도 새로운 키워드들이 생겨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사다난…

연초 카드3사 개인정보 1억건 유출 사고
KB 내분 여파 최수현 금감원장 물러나

새해에는…

창조경제 발맞춰 기술금융 한층 활성화
모바일 기반 스마트뱅킹 '핀테크' 본격화

먼저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맞춰 '기술금융'이 금융권의 최대 화두가 됐다. 신제윤 위원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 활성화를 요구하자 기술금융 시장도 급격하게 팽창했다. 이에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7월 말 1922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6조663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확산된 기술금융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내년에도 이어져 기술금융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 및 정책 사업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술금융과 함께 핀테크(fintec)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금융회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전망이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을 융합한 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전반을 의미한다.

과거 은행 창구에 줄을 서 금융업무를 보아야 했지만 최근 국내 은행들은 핀테크를 활용해 탈 점포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뱅킹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내에는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모바일 송금이 가능해지자 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방지하는 규제로 인해 개발이 끝났음에도 본격적인 서비스가 미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 핀테크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핀테크 시대를 향한 정부의 의지 역시 강력하다. 신제윤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IT·금융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함께 소비자보호 및 정보 보안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은 금융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융복합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밝음 속에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처럼 금융권에도 기회와 함께 위기도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중·일 등 아시아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저성장 고령화 금융 본격화 등 위기의 순간이 봉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성장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이자보상비율이 취약한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중국계 은행은 경제력 확장에 힘입어 4000조원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 금융 글로벌화 의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중국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커버스토리 18~19면

2014 금융권 무슨 일 있었나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월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3월	우리 · 기업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4월	국민은행 1조원대 허위입금증 발급
5월	KB금융 전산기 문제로 내분 촉발
6월	금융당국 KB 경영진 중징계 사전 통보
7월	하나 · 외환은행 조기통합 선언 노조 반발
8월	국민은행 전산 담당임원 고발, ING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9월	임영록 KB회장 해임
10월	윤종규 KB회장 선출
11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사퇴, 우리은행 민영화 불발

개인정보 유출 '화들짝'… 비극으로 막 내린 'KB 내분'



올해 금융권 핫이슈

카드사 회원 대다수가 피해
정보수집 최소화 등 종합대책

예금 1%대 초저금리 시대 개막
가계부채 증가 사회문제 대두

원·위안 직거래 수출기업 '단비'
美 QE 종료·아베노믹스 '변수'

올해 금융권에는 전국을 들썩이게 한 이슈들이 유난히 많았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KB사태, 우리은행 매각 난항 등 대형 사건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아베노믹스 등 대외적 변수도 주요 이슈로 꼽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금융권 10대 뉴스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KB 사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예금금리 1% 시대 임박 △원·위안 직거래 체제 출범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과 잠정적 연기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노믹스 전성시대 △미국QE 종료 △금융실명제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1월 8일 창원지검은 KB국민·롯데·NH농협 등 3개 카드사로부터 1억 여건의 고객정보를 불법 유출한 외부용역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했다.

이번 사고는 카드사가 외주업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기본적 보안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으며 개인정보 불법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등 제도와 관행상 문제에도 기인한다. 금융회사들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영업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동안 GS칼텍스, 네이트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 대다수가 피해 영역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금융정보가 유출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보안 구멍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들은 몇 천, 몇 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은 무감각하거나 자신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공유 정보라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만연해 왔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카드사 정보 유출 이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엄격히 제한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관치 금융의 상처만 남긴 KB금융 사태는 막장 드라마였다. 지난 5월 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서 시작돼 두 경영자가 당국의 징계를 받고 물러난 9월 말 일단락된 이 사건은 내부통제 부실, 낙하산 인사 등 금융계 적폐 해소라는 과제를 던져줬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오락가락' 징계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8월 초까지 이어진 제재심의위는 '경징계'로 감경했다. 이에 입지가 위축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징계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내분 사태로 KB금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을 틈타 제재심 결정을 뒤엎고 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잇따른 대형 금융 사고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으로 이어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은행 예금금리 1%대 시대가 도래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해 2%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예금 가입자가 세후 수령하는 정기예금 금리는 1%대로 추락했다.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예금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도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위안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위안 직거래 시대가 개막했다. 양국은 원·위안 무역거래 활성화, 청산은행 지정, 원·위안 외환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800억 위안 쿼터 확보, 위안화 채권 발행 등 종합적인 원·위안 직거래 체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이 났다. 지난해 6월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을 결정한 이후 1년 반 동안 진행된 우리금융 4차 민영화는 결국 정부 지분 중 5.94%를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작 우리금융 민영화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은행 매각은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관심을 보여 왔던 교보생명이 막판에 불참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지난해 대비 개선되는 추세이나, 3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9%로 최근 10년(2004~13년) 평균(0.6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중·일 3국이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위해 각각 초이노믹스, 시지노믹스,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노믹스 전성시대'가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 밖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양적완화(QE3) 공식 종료, 금융실명제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도 포함됐다.

지난 1993년 8월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거래는 허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향후에는 합의한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됐다.

박엘리 기자 ellee@

금융권 논란거리, 해법은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낙하산 제동

올해 초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KB금융 사태, 예금금리 1%대 시대 임박 등 각종 이슈와 맞물린 금융권의 숙제가 산적하다. 저성장 기조에서 반복되는 금융권 사건·사고로 국민적 신뢰는 물론, 저수익과 부실 여신심사, 정보유출 기회비용 등은 공통된 숙제로 남았다.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은 금융권 신뢰 추락의 서막이었다.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한 고객들이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각종 온라인 회원 등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사회적 혼란까지 가중되기도 했다. 그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다. 대책 중 하나로 금융사 텔레마케팅 금지를 발표하였으나 여론 반발 등으로 철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형 전산사고, 전자금융사기,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금융회사에 IT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내년 초 설립키로 했다.

KB금융 사태는 금융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지주사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등의 권한행사에 있어 갈등을 심화시키고, 급기야 지배구조적 불안정성이 외부로 노출되는 등 은행 평판과 고객기반 훼손을 초래했다.

이에 지배구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다. 근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내재된 대리인 문제와 다양한 권한 행사자들 간에 잠재된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일례로 다양한 직업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선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인력풀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이같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KB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신규 사외이사들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금융실명제가 강화되자 실물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뚜렷해졌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꾸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유동화가 쉬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쏠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한 세테크를 노리던 자금을 다양한 투자처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현안에서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교보생명이 입찰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 매각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잔여 지분 30%를 우량 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함으로써 다수의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헐값에 지분이 매각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영업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대부잔액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부잔액 증가세가 지속되는 문제를 낳았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고, 또한 인수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우람 기자 hura@

쉽고,편리한 투자의 시작
KYOBO 교보증권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콕! 찍어드립니다
문자받고, 따라하는
참! 쉬운 투자서비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조1호 서/비/스
추천종목
※ 창조1호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입니다.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하나 더 이상 종목 찾을 걱정 Zero!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
둘 매매타이밍 고민 NO! 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그대로 따라하면 끝!
셋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 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을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예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취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3987호(2014.06.20~2015.06.19)

ICT·금융 융복합 활력… 취약산업 구조조정 악영향

2015년 금융권 기회·위기 동시 상륙

내년 금융권에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융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핀테크(Fintech)' 산업이 중점 사업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또 해외진출을 비롯한 각종 영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금융회사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조선·해운·철강 등 주요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저성장·고령화'라는 척박한 영업환경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회

모바일 기술 금융소비자 기대 높아

'핀테크' 육성 심의폐지·규제 최소화

중소기업 특허 기반 자금지원 가능

위기도 곳곳에

건설·조선 등 불황 수익성 저하 전망

中·日 금융자금 국내 진출 경계해야

저성장·고령화 맞물려 가계소비 위축

◇ ICT·금융 융복합 시대 도래…핀테크 산업 집중 육성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 7대 트렌드'에 따르면 내년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융복합 시대 본격화 △기술금융 활성화 △금융규제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중·일 등 아시아계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저성장 고령화 금융 본격화 등이 금융권 주요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을 융합한 서비스 핀테크는 금융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글, 애플, 페이팔, 알리바바 등 ICT기업들의 지급 및 송금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카카오페이나 뱅크월렛카카오 등 새로운 서비스 전달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바일 기술의 출현과 편리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 지급결제시장에서 ICT와 금융의 연계 강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ICT 기업이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상호 보완적 금융생태계 조성이 ICT와 금융의 융복합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핀테크를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에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무겁게 묻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꿀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IP)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기술금융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신용대출펀드를 32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금융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 취약산업 구조조정 본격화…중국·일본계 자금 국내 진출 러시 = 내년 금융권에는 위기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취약산업인 건설·조선·해운·철강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의 경우 신규 수주가 줄어들고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등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올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0.7%)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2010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의 고성장 기업 비중이 대폭 줄어든 반면, 5% 미만의 저성장 기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올 상반기 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7%로 2009년 상반기(5.2%)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2009~2013년 중 적자기업 비중은 대기업 16.7%→19.4%, 중소기업 17.9%→22.6%로 기업의 실적 편중현상도 심화되는 추세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이며 한계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건설, 조선, 해운, 철강업 등 주요 취약산업의 경우 업황이 불투명해 비우량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계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내년에는 국내 금융회사와 중국·일본 등 아시아계 금융회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계 은행은 경제력 확대에 힘입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시장 진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4000조원이 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중국 정부의 적극적 금융 글로벌화 의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해 중국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유럽계 외국은행 지점들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외화유동성이 좋고 본점 대출 승인 비율이 높은 중국계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계 자본 역시 풍부한 자금 조달능력을 이용해 국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가 3조8389억원에 달하는 일본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은 저금리 조달, 고금리 신용대출 전략 등을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저성장·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금융회사의 수익성도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kimmj@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찍으면 공과금 결제·수표 자동 입금…

내년 금융권 최대 화두는 '핀테크'

은행보다 빠르고 서비스 비용 저렴

까다로운 행정절차·규제 개선해야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 '핀테크'가 내년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핀테크는 공과금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수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로 입금되는 등 미래 사회에서 상상으로만 예상되던 일이 현실화될 수 있는 산업 개념이다.

기존의 은행 거래보다 빠르고 값싼 서비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용분야 역시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13년 25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했다. 2014~2016년 연평균 34%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 시장은 규제 등으로 시작은 늦었으나 성장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은 수개월씩 걸리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발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벤처업체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벤처캐피털이 금융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국내기업이 핀테크 기술에 투자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핀테크 벤처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는 규제 탓에 한국에서 창업 자금을 모으지 못하고 멀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지원받았다. 한국NFC의 경우 허가 신청을 냈는 데도 불구하고 보안성 심사에 걸려 8개월째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국내 주요 ICT 기업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현황 ※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업종	업체	모바일 결제 및 송금 서비스
통신	KT	모카월렛(전자지갑), 모카페이(간편결제)
	LG유플러스	페이나우플러스(간편결제)
ICT	SK플래닛	시럽(전자지갑), 페이핀(간편결제)
	다날	바통(직불결제)
	인터페이	페이톡(직불결제)
	삼성전자	삼성월렛(전자지갑)
	G마켓, 옥션	스마일페이(간편결제)
	한국사이버결제	셀프페이(간편결제)
	페이게이트	AA(간편결제)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뱅크월렛카카오(모바일지갑)

전자결제 전문회사인 페이게이트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금감원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국내 카드사들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했다. 이에 올 9월부터 비자, 마스타 등 해외 카드사와 손잡고 알라딘에 간편결제 기능을 넣었다.

업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포괄적 금지 규정도 많고 법률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 산업에 참여한 ICT 업체들이 은행이나 카드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송금 및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거나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구귀 기자 kkk@

무려 8억원까지
연 4% 수익률
(세전, 2014.11.17기준, 3개월물, 개인고객)



“경력 30년차에 ‘경단녀’ 돼보니 후배양성 책임 느꼈죠”



⑧ 오 세 임 OCBC은행 서울지점 본부장

약력
▲1984 연세대 수학과 졸업
▲1984 동양나이론 컴퓨터신사업본부 입사
▲1992 씨티은행 기획부장
▲1996 씨티증권 업무 및 재무담당 지배인
▲2002 드레스드너 클라인워트 와셔스틴 증권 업무총괄 이사
▲2006 한국씨티은행 프라이빗뱅크사업부문 경영관리부장
▲2009 골드만삭스 은행업무총괄 상무
▲2009 우리투자증권 Operation & Technology 본부장·상무
▲현 OCBC은행 서울지점 본부장

강추위가 엄습했던 이달 초 서울파이낸스센터(SFC) 한 커피숍에서 오세임 OCBC은행(화교은행) 서울지점 본부장을 만났다. 인사를 마치고 직함에 대해 물었다. 오 본부장은 “싱가포르계 은행인 OCBC은행에서는 장외파생 상품 인·허가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이 직함보다 더 좋아하는 직함이 있다”며 명함 한 장을 더 꺼내 보였다. 명함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재양성센터 외래교수’라고 적혀 있었다.

우투 퇴직 11개월 공백기 동안 리더십 강의·멘토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저절로 주어진 적은 없어 ‘헝그리 정신’이 사회생활 원동력

한국금융, 조직관리 등 변화 둔감 재직때 핀테크 대응미흡 아쉬워

◇경력단절 당시 경력 쌓아 = 오 본부장은 두 명함에 찍힌 것 외에도 한국장학재단 지도자급 나눔지기,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유스 드림 멘토(Youth Dream Mentor), 여성 리더가 여성 리더를 키우는 모임인 윈(WIN) 멤버, 여성금융인 네트워크 회장단, 미래포럼 30% 클럽 기획의원 등 모두 7개의 직함 가지고 있다.

오 본부장이 다양한 직함을 갖게 된 것은 경력단절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 본부장은 “금융권 경력 30여년의 자신이 지난해 7월 낯선 세상에 던져졌다”고 회상했다.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승진해 4년 동안 일했던 우리투자증권을 갑자기 나오니 앞이 막막했다고 한다. 그는 “퇴직 후 첫 월요일에도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지만 갈 데가 없었다”며 “명함 없이 스스로를 알리는 생소한 상황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일해 온 그의 머릿속에는 뒤늦게 다시 찾아온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에 맞닥뜨렸다. 오 본부장은 “혼란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쉬는 11개월 동안 많은 경력을 쌓았다”고 한다.

어떤 역할에 가장 애착이 가느냐고 묻자, 망설이지 않고 “다양한 사람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상담사”라고 했다. 전문 상담사를 꿈꾸는 그는 고급 코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간에 코칭 자격증을 따고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외래교수로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급 여성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를 했다. 또 한국장학재단 지도자급 멘토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여성 리더를 키우는 모임인 윈(WIN) 멤버로 후배들에게 자신의 사회 경험을 전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나눔에 눈뜬 것 같다”고 말했다.

◇헝그리 정신이 버팀목 = 1984년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 그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다고 한다. 그는 “회사가 여자인 자신을 인재로 키워 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생각은 30년이 지낸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털어놨다.

2남2녀 중 맞딸로 태어난 그는 8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다. 집안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했던 그였지만, 대학 졸업반에 들어서 좀처럼 취직이 되지 않았다. 오 본부장은 “학점도 우수하고 서류시험도 패스했지만 항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국가 차원에서 여자 직원을 뽑으라고 권고해 입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 기회는 한 번도 저절로 주어진 적이 없었다”며 “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의 나 사이의 부족함이 30여년의 사회생활 동안 끊임없이 채찍질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던 만큼 그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헝그리(Hungry)정신이 버팀목이었다.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까지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안정보다 도전과 성장을 선택했다. 그 도전이 은행과 증권 등에서 회계, 기획, 전산, 인사,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업무를 맡을 수 있었으며, 외국계 금융회사와 국내 금융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금융권 보신주의 탈피해야 = 30년간 금융권에 몸담은 오 본부장은 이제는 보신주의를 벗어 던질 때라고 말한다. 그는 “금융회사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과거 20년간 뒤처진 국내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보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투자증권에 임원으로 재직 시 핀테크(FinTech)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시도했으나 생각만큼 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오 본부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무분별하게 글로벌 금융회사의 관리방식을 따라갔던 것처럼,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의 경영방식을 폄훼하는 우리나라 금융 리더들의 속단을 경계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조직관리, 프로세스관리, 전략선정, 인력관리 등 여러 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오 본부장은 “금융경쟁력 평가지수에서 동남아 국가의 금융보다 못하다고 나오는 것을 겸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본부장은 낙후된 금융시장의 원인으로 다양성의 결핍을 꼽았다. 그는 “빗장이 열린 지구촌이라서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며 “다름을 받아들이고 영업 및 조직관리를 다르게 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너무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글/김우람·사진/신태현 기자 hura@

오 본부장이 꿈꾸는 ‘15클럽’

“15% 사람들만 제대로 행동해도 ‘살만한 사회’ 만들수 있죠”

오세임 본부장은 사회 변화의 중심엔 늘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며 “15%의 사람이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살 만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는 말을 듣고 ‘15클럽(Club)’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5클럽 지향점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오 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15%가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그의 꿈대로 생각하고 기획하는 멤버가 3명이지만, 5년 이내에 꼭 결성해 움직이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을 앞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뜻으로 모여 사회의 진정한 어른이 되는 모임을 지향한다.

그가 15클럽을 결성하게 된 이유에는 후배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안겨 주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된다. 오 본부장은 후배들에게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라며 “직장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핑계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부딪혀 보라”고 조언했다.

30여년의 직장생활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해 갔다는 그는 “일은 나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소명이었다”며 “일과 함께 멋진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후배들을 기대한다”고 활짝 웃었다. 김우람 기자 hura@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aT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핀테크’ 효자 NFC가 ‘예산먹는 하마’?

〈근거리무선통신〉

비판 쏟아지는 근시안적 정책

‘기술 한류’로 추앙받던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이 ‘예산먹는 하마’로 내몰려 정부 사업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먼 미래를 보고 육성하겠다던 사업이 정권 교체로 소관 부처가 바뀌자 2년 만에 힘이 빠진 것이다.

최근 핀테크(Fintech) 열풍으로 다시 NFC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던 정부의 NFC 육성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3년 미래부로 사업이 넘어간 뒤 흐지부지됐다.

방통위 2011년 “시장 가능성 커…기술한류”
단말기 보급률 늘리는 등 육성사업 밝혔지만
2013년 미래부로 사업 이관되며 흐지부지
육성정책서 방치…국내 NFC환경 위축으로
IT업계 “핀테크 강국 꿈꾸면서 어떻게…”



박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미래부는 지식경제부, 방통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 중 일부를 넘겨 받았다. 그 과정에서 미래부는 “NFC결제 확대는 통신사, 카드사, 유통사 등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결론짓고 중요 정책에서 제외됐다.

예산을 들여 육성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필요하면 민간 자생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NFC 환경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2년 기준 NFC 결제 기능이 탑재된 POS단말기는 전체의 15%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위주로 보급돼 영세 소매점 중에는 NFC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

미래부 출범 2년 동안 NFC 단말기는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수치가 없는 이유는 2012년 이후 미래부가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 NFC사업 담당자인 미래창조과학부 백대현 사무관은 “지금 보급률도 당시의 15%와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1년 당시 NFC 단말기 보급률을 오는 201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예산투입을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NFC 결제를 모바일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인증, 광고와 같은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NFC 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NFC가 기술 한류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최근 핀테크 열풍을 타고 NFC가 주목받자 방통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NFC는 다양한 결제수단 중 쓰기에 편하고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애플사의 애플페이가 NFC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내년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미래부가 챙기고 있는 NFC사업은 초보적 행정정보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택시 안심서비스, 약수터 수질정보서비스, 놀이터 안전점검 정보서비스 등에 머물러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강국을 꿈꾸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안게 됐는지 한심하다”며 “내년에 480조원이 된다는 모바일결제시장에 대한 대응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비트허브 기자 norainonme@bithub.co.kr

‘핀테크’ 보안 구멍 뚫렸는데…금융당국도 기업도 ‘속수무책’

신용카드 정보 해킹당한 POS단말기 무방비 방치
여신協 ‘영세업체 단말기 교체사업’ 증여세에 발목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해킹된 소매상점의 POS(결제시점)단말기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fintech)를 제1 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그 핵심인 보안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보다 비용지출을 더 무서워하는 대형마트들도 손을 놓고 있다. 영세 상인들의 POS 단말기 교체를 위해 모은 기금 가운데 500억원은 세금으로 날릴 처지에 놓였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보안에 취약한 전국 대형상점의 POS단말기를 올 연말까지 안전한 IC(집적회로)단말기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대형 상점들이 단말기 교체비용에 부담을 느껴 손을 놓고 있어서다. 현행 POS단말기를 보안에 강한 IC단말기로 교체하려면 대당 20만원 정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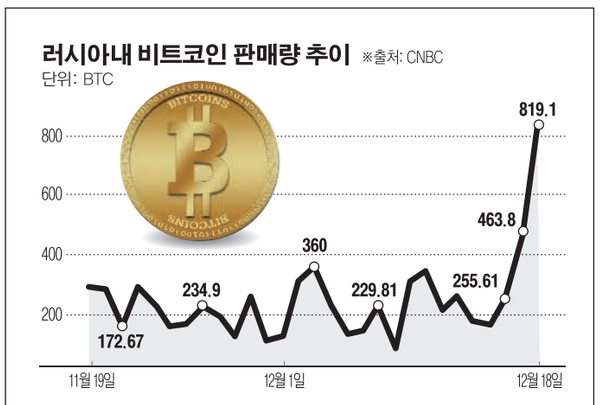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단말기 교체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OS단말기 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카드사를 주선했을 뿐 금감원이 사업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후 진행 상황은 모른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교체키로 한 영세 사업자용 단말기 교체사업은 증여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신협회는 영세상점의 단말기 교체를 위해 주요 카드사로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이 중 500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협회가 기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면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증여세로 5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신협회는 금감원과 국세청에 문제 해결을 호소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 POS단말기는 보안에 취약해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하다. 지난 4월 한 커피전문점의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 거래기록이 해킹됐다. 범인들은 카드를 위조한 뒤 268건에 걸쳐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김정아 비트허브 기자 norainonme@bithub.co.kr



러시아 루블화 폭락 비트코인 인기 ‘폭발’

안전자산으로 인정…거래량 크게 늘어

러시아 국민들이 폭락한 루블화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찾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국가 경제가 위기로 내몰리고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현물을 찾는다. 예전 같으면 러시아 국민들은 금이나 부동산 자산에 매달렸을 것이다.

이번 루블화 폭락 사태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미 국제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

24일 비트코인 거래 정보 사이트인 비트코인차트닷컴에 따르면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던 지난 16일 루블·비트코인 간 거래량은 최근 30일 평균 거래량보다 250% 늘었다. 이는 지난 일 년 사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가부도 위기에 놓였던 키프로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키프로스에서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불안정한 화폐의 헤징(hedging) 수단 중 하나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입증한 셈이다.

흔히 한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둘러 자금을 회수하고 내국인 역시 안전자산을 좇아 달러 수요가 급증한다. 하지만 키프로스와 러시아의 사례에서 보듯 달러의 대체수단으로 디지털 화폐가 인기를 얻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고 거래 수수료가 적어 구하기 힘든 달러의 대안 화폐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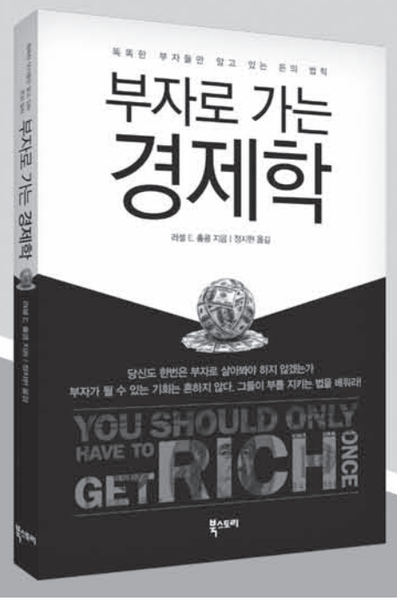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이 화폐로서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특징인 가격 안정성이 없어 자산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러시아와 키프로스 국민들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기존 화폐보다 가격 안정성이 높은 자산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 금융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러시아 국민들이 ‘세이프 헤븐’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러시아 당국이 직접적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으나 점차 불안이 커지면 (루블화 헤징에 대해) 제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기 비트허브 기자 henrykim@bithub.co.kr

비트허브 **bithub** 공동제작

당신도 한번은
세상이 바뀌고, 시장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들의 특별한 자산 관리법
부자로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똑똑한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의 법칙
부자로 가는 경제학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들이 부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러셀 E. 홀콤 지음 | 정지현 옮김 | 값 13,000원



You Should Only Have To Get Rich Once



www.ebookstory.co.kr 북스토리

Market news

코스닥·중소형株, 새해 '연초효과' 누리나

대신증권 "폐장 7~9일전 '매수 최적기' 1월·2월 '상승'… 아이센스·메디톡스 등 추천"

지난 2009년 이후 코스닥시장에서는 뚜렷한 연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초에는 코스닥 종목과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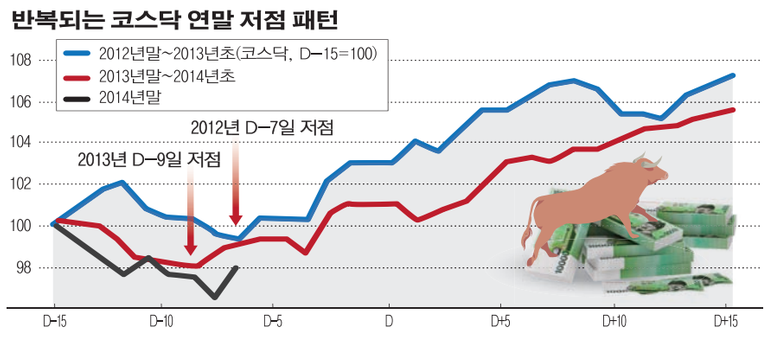
24일 대신증권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스닥지수는 1월과 2월에 각각 평균 2.6%, 2.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의 평균 등락률은 0.2%, -1.0%에 그쳤다.

코스닥 초과 상승 확률도 1월과 2월 각각 83%, 100%를 기록해 연초 코스닥시장의 상대적 강세에 대한 통계적 신뢰는 높다는 분석이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이 같은 연초 효과를 기대하고 코스닥시장 종목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좋은 시점은 바로 폐장 전주였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종목 매수 최적기는 폐장 7~9 거래일 전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코스닥은 2개월간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냈다.

김 연구원은 "이달 중순 들어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반등했지만 외국인 수급의 원천인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은 여전히 국내 증시에 비우호적"이라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수급상으로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반복되는 코스닥 연말 저점 패턴



연초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현상은 주요국 증시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1월에 소형주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초에 반복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는 수급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1월과 2월은 실적의 주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또 정책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변수보다는 수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시기다. 지난 2년간 기관과 외국인 두 주체의 순매수 합은 연말~연초 빠르게 증가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올해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기관+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하고 있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연말 연초에는 수급의 주가 영향력이 큰 만큼 코스닥에서의 수급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2년간 1월 종목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수급 주체 선호 종목의 성과가 좋았다는 설명이다.

2012년 말~2013년 초의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고 2013년 말~2014년 말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 수급 주체는 일단 외국인으로 김 연구원은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2014년 말 현재 코스닥 수급 주체는 외국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1월 효과를 기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최근 2주 외국인 매수 강도가 강한 종목은 아이센스, 인터플렉스, 메디톡스"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미래인재 키우는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교환장학생 200명에 장학증서 수여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15기 해외 교환장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사진>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박현주재단은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기치 아래 해외 교환장학생을 비롯해 국내장학생,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등 총 5675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특히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은 한국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넓은 세계에서 지식을 함양하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발된 200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3117명의 대학생이 전세계 39개국으로 파견됐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장학사업과 함께 '결식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부운동 '사랑합니다'와 '봉사단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조현욱 미래에셋 사회공헌실 상무는 "해외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글로벌 시각과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 자본시장 활력회복 기여"

한국거래소 분석

한국거래소는 2014년도에 새롭게 시행한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 사항의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24일 자평했다.

이번 분석은 시간외시장 가격변동폭 확대,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도입, 매매수량 단위 축소(코스피)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후 3개월간(단주효과 분석은 6개월간) 진행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으로 시장 내 유동성이 효율적으로 집중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제고되는 등 자본시장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보 반영의 효율성 제고로 시간외시장의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VI 도입을 통해 저유동성 종목의 가격변동폭이 축소되는 등 시장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시간외시장의 거래대금 코스피는 73억6000만원에서 117억6000만원(+60%)으로, 코스닥은 84억7000만원에서 143억 8000만원(+70%)으로 증가했다.

또한, 코스피시장 단주(1주)거래 허용으로 시장 내 유동성이 증대되고 저가주 보유 규모가 큰 개인투자자의 계좌수가 증가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주의 정규 시장 중 호가 건수가 증가(+53%)하고 단주 호가 건수도 증가(+63%)하는 등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제고됐다. 정유현 기자 yhssoo@

편식 심한 개미… 투자자 55% 한 종목에 '몰빵'

개인투자자 83% 집중투자 10종목 이상 분산투자해야

개인투자자들 대부분이 분산투자보다는 3개 종목 이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화투자증권이 최근 5년간(2012년 1월~2014년 9월) 자사 개인고객의 평균 보유 종목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고객 중 3개 종목 이하에 투자한 고객이 83.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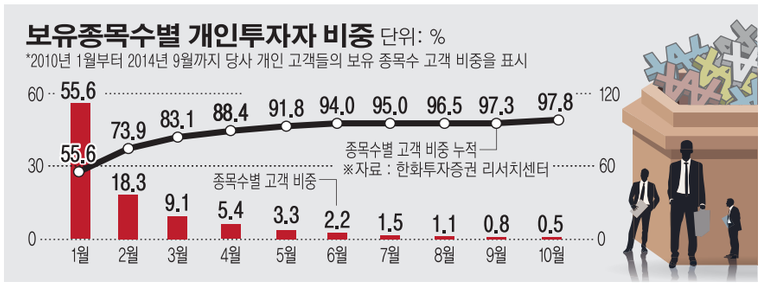
주식자산 전부가 단 한 종목으로 구성된 투자자도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10개 종목 이상에 분산투자한 고객의 비중은 2.7%에 그쳤다. 사실상 분산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유 종목수가 많은 투자자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보유종목수별 개인투자자 비중 단위: %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당사 개인 고객들의 보유 종목수 고객 비중을 표시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개인 고객의 보유 종목수와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1~5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평균 3.3%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10~15개 종목에 분산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평균 0.6% 수익을 거뒀다.

강봉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보유 종목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특히 1개 종목에서부터 9개 종목까지 보유 종목수가 늘어나는 동안에 변동성 감소가 두드러졌고, 10개 종목 이상에서는 변동성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자산의 수익률 변동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연구원은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면 투자과정 중 경험하는 수익률 하락 폭이 줄어든다"며 "10개 종목에 분산투자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국내기업, 주식보다 대출로 자금조달"

간접금융, 직접금융 2배 달해

국내 민간기업의 연중 자금조달 가운데 주식과 회사채 등을 통한 직접금융보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한 간접금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과 비교해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의 자금조달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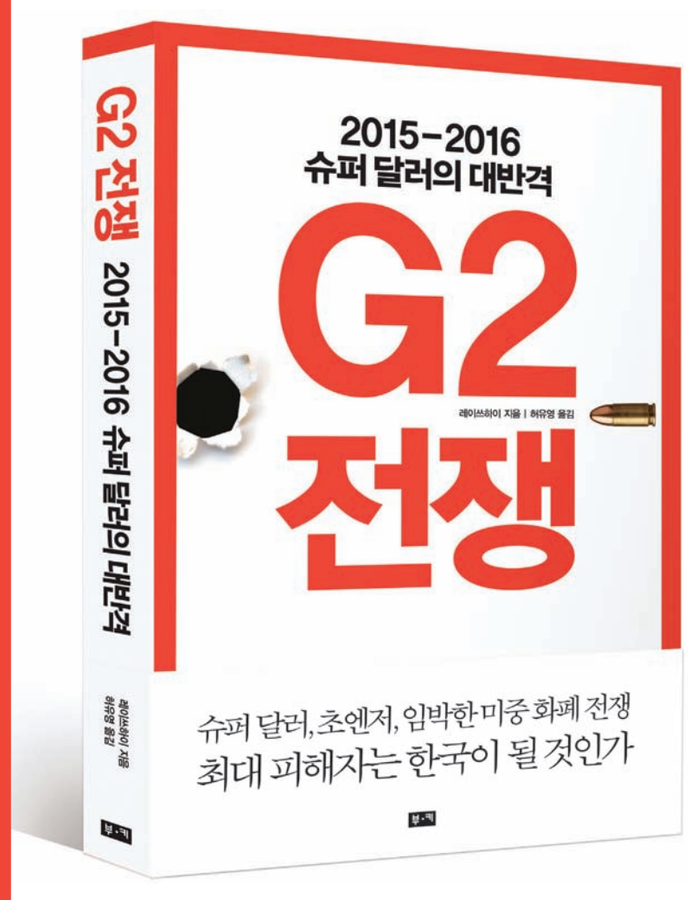
24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 및 미국과의 비교'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주식과 회사채 등을 통한 장기 자금조달 규모는 연평균 27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권의 대출금 34조5000억원보다 작은 규모다.

각 기업별로 주식을 통해 꾸준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06년을 정점으로 자금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2009년을 정점으로 정체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은 2010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2012~13년에는 주식이나 회사채보다 자금조달 규모가 더 컸다. 자금조달 규모를 연도말 잔액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내의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비중은 약 2분의 1 수준이다.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주식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중 대기업 비중은 2009년을 기점으로 60%를 초과해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80%를 넘어섰다.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대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형 기자 junior@



미·중 화폐 전쟁 초읽기
한국 경제 최대 위기가 온다

슈퍼 달러, 'G2 파트너' 중국 자본 시장을 정조준하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IMF의 「201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2004년 10월)

2015-2016 슈퍼 달러의 대반격 G2 전쟁

레이쓰하이 지음 | 허유영 옮김 | 14,800원 부·키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조아제약 '형질전환 복제돼지' 임상시험 진행

인간성장호르몬 추출 동물실험 내달 종료… 다국적제약사와 라이선스 검토

조아제약의 인간성장 호르몬 분비 복제돼지에 대한 전임상(동물실험)이 내달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 임상허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임상 시험에 돌입할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시작한 조아제약의 이번 비임상 시험이 내년 1월 19일 종료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비임상 시험은 1년이 걸릴 것으로 연구소에서 예상한 바 있다"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후 임상 1상, 2상, 3상을 차례로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제약은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 국책사업인 바이오그린21사업 과제로 '유즙에서 인간성장호르몬을 분비하는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생산과 hGH의 분리정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목적단백질을 제공하는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고 그 돼지의 유즙으로부터 인간성장호르몬의 발현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인간성장호르몬에 대한 순도 및 물성시험을 완료했고, 올초 비임상 전문기업인 바이오톡스텍과 '설치류(쥐)'에서의 인간성장호르몬 'CGH942'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위탁시험 용역 계약을 맺었다.



조아제약은 내달 종료하는 비임상 시험을 통해 인간성장호르몬의 안전성을 평가받게 되면 안전성 자료와 함께 임상시험 계획승인신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다국적제약사와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간성장호르몬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0년도 기준으로 약 800억원 정도이며 매년 10%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시장규모는 약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조아제약은 hG-CSF(인간백혈구 증식인자)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초 관련 복제돼지 확보에 성공했고, 지속적인 이식작업을 통해 상 업적으로 의미있는 충분한 숫자의 hG-CSF 형질전환 복제돼지 확보할 예정이다.

hG-CSF는 원래 인체 혈액에 있는 단백질로 백혈구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으면 백혈구가 파괴되면서 면역력이 감소돼 감염에 취약해 지는데 이때 외부에서 hG-CSF를 주입하면 백혈구 감소를 막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쌍방울 "열려라 알리바바!"

내일 中 롯데홈쇼핑 첫 방송… 타오바오·티몰 입점 추진

쌍방울은 오는 25일 중국 롯데홈쇼핑을 통해 첫 판매방송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쌍방울이 이번에 판매할 제품은 남성 드로즈 팬티다. 기존에 이미 중국 유고홈쇼핑에서 판매가 된 제품으로 롯데홈쇼핑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론칭이 될 것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중국유통사업본부 이상화 본부장은 "이번 추가홈쇼핑 계약으로 방송 수신 지역이 북경 외 충칭·상하이 및 중국 동북 등 중국 전역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본"격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쌍방울이란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점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와 동내의 판매방송으로 중국 내 쌍방울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롯데홈쇼핑 계약에 이어 추가로 중국의 타 홈쇼핑업체와도 긍정적인 미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온라인쇼핑몰인 '타오바오','티몰'의 입점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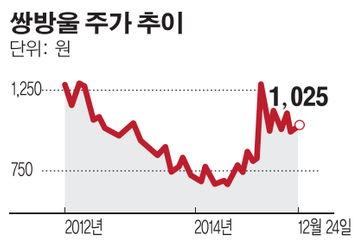
특히 타오바오와 티몰을 운영하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은 2013년 12월 기준, 가입자 7억명 총 거래량 2700억 달러(약281조원)로 현재 중국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쌍방울은 지난 5일 중국 광저우 하이신사 경기장서 열린 'IEF 2014 광저우 대회'를 후원하는 등 중국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IEF대회는 한·중 e스포츠 페스티벌로 사단법인 국제교류연맹과 한국컨텐츠진흥원,중국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광둥성정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 10회째를 맞고 있는 행사다. 쌍방울은 2012년 1월 중국 공청단과 합작사업, 청소년 문화교류 등에 관한 MOU를 맺은 것을 계기로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쌍방울은 게임대회 뿐 아니라 중국 내 종합문화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2년전부터 트라이 매장 개설과 중국 사업에 힘쓰고 있는 쌍방울은 문화교류사업 활동이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 손잡은 에이디테크, 2년새 1500% 성장

사물인터넷 단말기부품 공급

삼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물인터넷 ESL 단말기에 에이디테크놀로지가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매출이 2년 사이 150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 관계자는 "삼성전기가 사물인터넷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는 ESL단말기(내장된 전자가격표시기)에 에이디테크놀로지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 사물인터넷 단말기는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기는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사물인터넷으로 잡았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에스넷, 링네트, 코콤, 엔텔스 등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에 관심이 높다.

지난 10월에 열린 'KES 2014(한국전자전)'에서도 삼성전기는 사물인터넷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첨단 소재, 부품, 시스템 기술을 전시했다. 여기에서 삼성전기는 스마트 무선충전을 비롯해 근거리무선통신(NFC)가 내장된 ESL 태그를 공개했다.

ESL은 스마트폰으로 상품의 다양한 부가정보 확인과 인앱결제(IAP)가 가능한 기술이다. 삼성전기는 ESL 사업의 경우 내년 매출액 전망치를 올해의 2배 수준인 20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시스템RC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무선으로 정보를 받아 디스플레이 액정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부품이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시대에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야다. 실제 이번 달에 상장한 에이디테크놀러지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지난 2012년 6억 원대이던 사물인터넷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올해 지난 3분기 까지 이미 95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2년 사이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이미 150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에이디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매출이 공시를 통해 공개한 대로 많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어디에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물인터넷 매출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동성그룹, 올해 매출 1조 고지 오른다

화학·바이오·환경사업서 두각

동성그룹이 2014년도 총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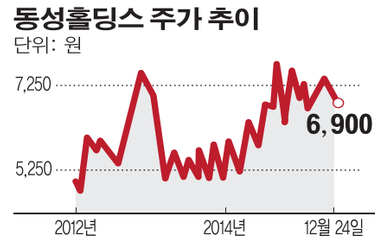
동성그룹은 지난 1959년 동성화학공업사(현 동성화학)를 모태로 부산에서 창업해 55년의 역사를 일구어 오는 동안 폴리우레탄 등 응용화학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왔다. 지난 2008년 동성화학에서 지주부문을 분할해 동성홀딩스를 설립한 이후 LNG수송선박 부품인 보냉재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화인텍을 인수해 사업을 정상화시키면서 1조원 달성의 기틀을 다졌다.

이 그룹은 최근 '비전(VISION) 2020'의 기치 아래 2020년도까지 그룹의 총 외형을 3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그룹의 사업구조와 내용을 화학산업 분야의 고강도 경량화 복합소재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김해에 위치한 도하인더스트리를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체제와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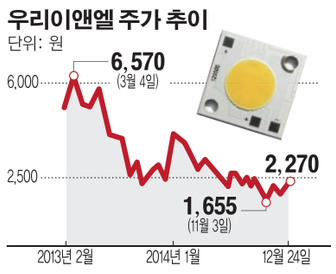
이 외에도 현재 동성홀딩스는 제네웰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사업기회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페타이어를 친환경적으로 열분해하여 100% 자원화시키는 사업을 동성에코어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고강도 복합소재의 화학산업을 비롯한 바이오, 환경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성홀딩스의 관계자는 "향후 동성그룹은 자동차, 비행기, 선박 및 기타 산업 분야에 집중적 성장이 예상되는 경량화 복합소재 부문의 응용소재 사업부터 이를 활용한 가공산업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해 동성그룹 전사적으로 내재화 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과 육성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그룹의 모든 경영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우리이앤엘 주가 추이



고전압 LED 패키지 개발 우리이앤엘 내년초 상용화

우리이앤엘은 기존 전원변환장치(SMPS)를 사용하지 않는 교류(AC) 직결 구동용 고전압 LED 패키지 개발을 완료,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성공한 교류 직결 구동용 LED 패키지는 일반 사무실이나 가정에 공급되는 교류전압(AC)인 110V, 220V에서 별도의 전류변환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로 인해 LED 제품 고장의 주원인인 SMPS를 제거할 수 있어 제품의 신뢰성까지 높였다.

특히 기존 저전압형 LED 패키지의 경우 일반 상전압을 맞추기 위해 약 80개의 LED 패키지를 사용해왔지만, 이번 우리이앤엘의 고전압 LED 패키지는 12개에서 최대 4개까지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설계에 필요한 패키지 수량 또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리이앤엘에서 개발 및 출시하는 제품은 5630(9V), 2828(22V/33V), 3535(22V/33V/66V) 총 6종이며 성능은 0.3W, 0.7W, 1.3W급으로 직관등, A19, 다운라이트, 공장등, 가로등 등 실내외 조명제품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LED패키지 라인업이다.

현재 이 제품들은 출시와 동시에 국내 여러 조명제조사에서 적용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외 조명기업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은 내년 상반기 내 본격적인 매출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이앤엘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저가 제품 유입으로 심각한 가격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LED 패키지 제품군을 선보이게 됐다"며 "새로운 LED 패키지 솔루션인 고전압 제품 출시를 통해 차세대 조명시장을 선점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주주가치 제고" 탑엔지니어링, 75억 워런트 소각

탑엔지니어링은 김원남 대표이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권면금액 25억원)을 매입해 소각한다고 23일 공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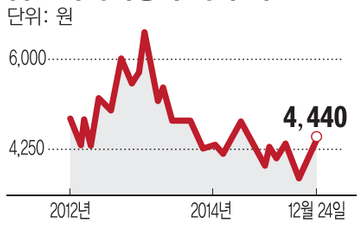
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은 지난 2012년 9월 14일 발행된 제2회차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된 것으로 주당 행사가격은 4045원, 행사 가능한 주식 수는 296만주 규모다. 사채는 이미 지난 해 11월 전액 조기 상환됐다.

탑엔지니어링은 지난 18일에도 사모PEF가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권면금액 50억원)을 매입·소각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총 권면금액 75억원 가량의 워런트 소각을 진행하게 됐다.

두 차례에 걸친 매입을 통해 소각되는 주식의 수는 약 185만여 주에 이르며, 기업의 오버행 이슈를 상당부분 해소하며 주가 안정화와 기업의 주주가치 또한 제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탑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근 기업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주주가치 증대 경영의 일환으로 이번 신주인수권 매입 및 소각이 이뤄졌다"며 "경영의 내실화와 신규 사업 역량 집중으로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비츠로시스, 21억 '水운영 사업' 수주

비츠로시스가 21억 원 규모의 수(水) 운영 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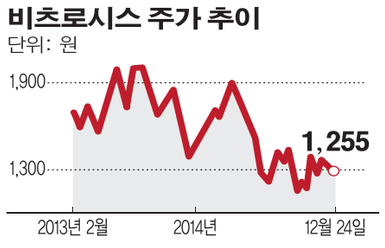
비츠로시스는 '부산광역시 종합상황실 수 운영시스템 개선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약 21억3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는 종합 수 운영시스템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본부 종합상황실과 각 사업소간 운영 프로그램을 통합 개선하는 사업이다.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목표로 진행된다.

회사 측은 "올해 초 인천광역시 '수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간의 업력과 기술력, 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 부산 수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역시 수주하게 됐다"며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통합(SI) 전문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츠로시스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실적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3월 결산법인이 대부분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비츠로시스만 흑자기조를 유지해 주목 받고 있다. 비츠로시스의 상반기 매출액은 459억 9996만 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억 9424만 원, 6억 2708만 원을 기록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제이엔케이히터, 칠레에 ACC 공급계약 체결

제이엔케이히터의 미국 현지법인이 스페인 UTE AbenerTeyma사와 70억원 규모 공랭식응축기(Air Cooled Condenser, ACC) 공급계약을 추가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스페인 UTE AbenerTeyma사와 체결했던 70억원 규모의 ACC 공급 계약에 이어 두번째다. 스페인 UTE AbenerTeyma 사는 칠레 Atacama desert사에 ACC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이엔케이히터 측은 "세계 플랜트시장은 중동 일변도의 투자에서 동구유럽, 아시아 및 미국 등으로 투자 다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당사는 멕시코 계약 역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제이엔케이히터는 ACC의 핵심부품인 증기응축전열관의 생산을 위해 충남 당진에 자체 공장을 설립했다.

김성철 제이엔케이히터 전무는 "기본설계, 상세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종합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해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행복을 나눕니다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야차이와시'를 키우다 미래의 가능성을 키우다

20년 전 우리는 페루에서
산유국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이 페루의 가능성을 함께 키웁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야차이와시'.
농지, 기술, 금융 지원부터 교육과 의료까지 지원합니다.
지구 반대편 농촌의 자립을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갑니다.





야차이와시
Yachay(가르침)와 Wasi(장소)의 합성어로 '교육장'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4개 광구의 석유사업, 1개의 LNG 프로젝트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페루와 미래의 가능성을 나누고자, SK이노베이션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의 이름입니다.
페루 정부, 대학, NGO와 함께 기술교육, 농지임대, 금융, 농산물 판로 등을 지원하여 가난한 페루 농촌의 자립을 돕습니다.
현재 후안카노 마을에 1호점, 필피차카 마을에 2호점을 이어가며 현지에서 미래의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인천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